

21세기 개혁신학의 과제

김영한(숭실대)

머리말

다가오는 21세기에 직면하여 개혁신학은 어디로 가야 할 것인가? 오늘날 우리는 포스트모더니즘이 전통과 권위와 경전을 해체시키는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다. 성경의 권위에 대한 확립의 여부에 개혁신학의 사활이 달려 있다.

1994년 11월 27일 미국 복음주의 신학회 제46차 연례대회에서 “미래의 역사- 또는 지금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The History of the Future - or what should we do now?)라는 제목으로 행한 강연에서 루스 부쉬(L. Russ Bush)는 미국의 복음주의 신학자들이 성경관과 해석학에 있어서 자연주의 사상의 전제와 고등 비평의 영향을 받고 있는 자들이 있다고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¹⁾

그리하여 복음주의자들의 성경 연구와 방법론에 자유주의적 전제가 침투해 들어오고 있다.

예컨대 [시카고 성경무오성명](The Chicago Statement on Inerrancy, 1978)을 받아들인다고 하면서 여호수아서는 여호수아 당시의 역사를 말하지

1) L. Russ Bush, “The History of the Future - or What should we do now?”, *Journal of the Evangelical Theological Society* 38/1, March, 1955, pp. 3-10.

않고 후대의 젊은 요시아 왕을 위해 만든 책이라고 주장하는 복음주의 학자들이 나오고 있다.

미국에서도 정통주의를 표방하는 미조리 루터교(the Missouri Synod Lutherans), 남침례교(the Southern Baptists), 복음주의 카버난트 교회(the Evangelical Covenant Church), 풀러 신학교(Fuller Theological Seminary), 복음주의 신학회(the Evnagelical Theological Society) 등은 성경의 무오 입장을 더이상 견지하지 않는다.²⁾

[한국복음주의 신학회]나 [한국개혁신학회]에서도 성경학을 전공하거나 다른 분야를 전공하는 신학자들 가운데 성경의 영감설과 무오성을 받아들인다고 하면서 서구에서 배워온 자유주의적 고등비평의 방법을 사용하는 자가 적지 않다.

다가오는 21세기는 포스트모더니즘이 지배하는 세기이다. 포스트모더니즘은 정경을 부인하는 인본적 사상이다. 이러한 사조가 더욱더 기독교 안으로 스며들어 오게 되는 것이다.

루터의 종교개혁 당시에는 교황주의에 의하여 복음이 은폐되었다면, 다가오는 21세기에는 세속주의에 의하여 복음이 은폐당할 것이다. 이때 우리는 종교개혁자들이 발견한 “오로지 성경만으로”(sola scriptura)으로 라는 종교개혁적 슬로건을 높이 들어야 할 것이다.

성경만이 기독교의 핵심 진리를 우리들에게 보장해 줄 수 있는 원천이기 때문이다.

복음적 개혁신학의 첩경은 바로 종교개혁자들이 가졌던 성경관을 계승하고 학문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이다.

1. 성경의 영감성의 새로운 이해

미국의 프린스턴 신학은 19세기부터 복음주의 신학의 뼈대를 세운고로 높게 평가된다. 19세기 미국의 부흥운동에 힘입어 부흥회에서 회개와 소명의

2) Robert K. Johnston, *Evangelicals at an Impasse*, John Knox, 1979, p. 1.

삶으로 부르심을 받은 젊은이를 전통적인 개혁신학으로 교육하기 위하여 프린스턴 신학교는 1812년에 세워졌다.

첫 교수 알렉산더(Archibald Alexander)에 의하여 시작되고, 찰스 핫지(Charles Hodge)에 의하여 강화되고 워필드(Benjamin Warfield)에 의하여 방어되어 1백년 이상 개혁신학의 토대를 닦았다.

19세기 일어난 자유주의 신학의 성경비평은 성경을 인간의 책으로 격하시키고 성경의 권위를 무너뜨렸다. 그리고 부흥운동 역시 성경이 주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인간의 체험 위주로 나아갔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주권과 성경의 권위가 무너지게 되었다. 이러한 영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프린스턴 신학은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했다. 그것은 다가오는 인본주의의 물결 가운데서 우리 신앙의 방파제가 되기 때문이다.

프린스턴 신학은 알렉산더, 핫지 그리고 워필드로 이어지면서 신학적으로 축자영감설을 제시하였다. 알렉산더는 완전영감(plenary inspiration)을, 핫지는 성경무오(inerrancy)를, 워필드는 축자영감(verbal inspiration)을 주장하였다.

여기서 영감은 기계적 영감이 아니다. 근본주의자는 축자영감을 하나님이 인간 저자에게 한자 한자 불러 주어 기록하게 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 계시가 갖는 인격적 자유성을 등한시하는 것이 된다. 우리는 이것을 유기적 영감에서 이해한다. 하나님이 인간 저자에게 성령의 충만을 통하여 그들이 사상뿐만 아니라 단어의 선택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틀림없이 전하게 했다는 것이다.

워필드가 말하는 바같이 성경은 성령의 영감으로 된 하나님의 말씀이면서도 동시에 영감된 인간 저자들들의 개성이 그대로 살아있는 인간의 책이다.³⁾

성경의 무오에 회의를 갖는 자들은 인간 개성이 반영된 인간의 책인 한에 있어서 성경 속에는 불가피하게 인간 저자의 기록의 오류가 있다고 본다. 그러나 성령의 역사를 우리는 단지 교리적 차원에만 국한시킬 수는 없다. 오류

3) B. B. Warfield, *The Inspiration and Authority of the Bible* (Philadelphia: Presbyterian and Reformed, 1948), p. 153.

없는 사실의 기록에 대하여서도 성령의 역사를 인정해야 한다.

바르트(Karl Barth)와 브룬너(Emil Brunner) 등 신정통주의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학의 주제로 다시 복권시키고 말씀이 갖는 역동적 성격을 회복하는 데 공헌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나님 말씀인 신적 내용(the divine content)과 성경 텍스트라는 지상적 형식(the worldly form)인 계시를 분리시킴으로써 텍스트가 영감된 것을 간과했다. 지상적 형식인 성경 텍스트는 영감되지 않은 인간의 말이요 오류 투성이라고 보았고 이것을 역사비판학의 재물이 되게 했다.

워필드는 인간 저자에 의한 성경 기록의 무오에 대하여 설명하면서 “성당의 색 유리창을 통과하는 빛”의 비유를 든다. “건축가에 의하여 색유리창의 색깔이 성당 속으로 밀려 들어가는 빛에 본래의 색조와 색질을 정확하게 주기 위한 분명한 목적으로 고안되었다면 어찌겠는가?”⁴⁾

성령 조명의 빛은 인간 심혼을 통과하면서 인간 개성에 채색되어 변질되지 않고 오히려 인간의 편견과 오류를 제거하면서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말씀을 순순히 받도록 하는 것이다. 인식론적으로 말하자면 성령의 조명은 인간의 선입견을 제거하면서 이해의 지평을 열어주는 것이다. 이것을 워필드는 성령과 인간 저자의 동류적(concursive, confluent) 작용이라고 한다. 이것이 기록이 오류를 절대 불용하며 오히려 “그 작품에 인간의 힘만으로는 성취할 수 없는 신적 성질을 제공한다.”⁵⁾ 이러한 성경의 영감이 저자의 단어 선택과 성경의 모든 부분과 전체에까지 미쳤기 때문에 성경은 무오하다.⁶⁾ 오늘날의 복음주의자도 이러한 영감론 “동류적 이론”(confluent theory)을 수용하고 있다.⁷⁾

워필드가 이미 제시한 바같이 동류적 작용을 통한 성경의 무오성이란 어

4) Warfield, *op. cit.* pp. 155-156.

5) Warfield, *op. cit.*, p. 158.

6) Warfield, *op. cit.*, p. 173.

7) Hermeneutics, *Authority and Canon*, eds. Don A. Carson and John Woodbridge (Grand Rapids: Zondervan, 1986), p. 45.

디까지나 성경의 원본(autographs)에 해당하는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원본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칼빈이 말하는 바같이 성령의 내적 증언(testimonium Spiritus Sancti internum)을 통하여 성경의 무오성을 확인하게 된다. 성령의 조명을 통하여 우리는 오늘날 원저자들에게 작용했던 성령의 동류적 작용을 반복적으로 체험하게 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오늘날에나 동일한 인격적 성령이 믿는 신자들에게 하나님 말씀에 대한 바른 인식을 주시기 때문이다. 진리의 영인 성령은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역사적 교회시대나 오늘날이나 동일한 진리의 영으로 믿는 자들에게 동류적으로 역사하신다. 당시에는 저자들에게 역사하셨으나 오늘날에는 독자들에게 역사하시면서 시대를 초월한 진리를 이해하도록 하신다.

1978년 [성경무오에 대한 시카고 선언] 4항도 “성경의 신적 저자인 성령이 그의 내증에 의해 그것을 우리에게 확증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 그 의미를 깨닫게 하신다”고 천명하고 있다.⁸⁾ 이 성령의 내증에 있어서 성령과 독자 사이에 동류적 작용이 있는 것이다.

초기 버크카워(Berkouwer)는 성령과 인간 저자와의 이러한 유기적 관계를 적응(adaptation, aansluiting)이라는 개념으로 표현하였다.⁹⁾ 적응이란 마치 아버지가 자녀의 수준으로 내려와서 자녀와 의사소통을 하듯이 하나님이 인간 수준으로 내려오셔서 자신을 알리신다는 것이다.

오늘날 비록 우리가 성경의 원본을 가지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원전비판을 통하여 원본에 거의 가까운 사본을 우리는 재구성할 수 있다. 그러므로 원본의 부재는 성경의 유오성을 주장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

영감의 범위는 [성경무오에 대한 시카고 선언] 2항이 전통적 견해를 이어 받아 천명하는 바같이 부분적이 아니라 전체적(plenary)이다. 성경은 “그것이 다루는 문제에 있어서 무오한 신적 권위서다.” 성경은 “그것이 주장하는 모든

8) Norman L. Geisler(ed.), *Inerrancy*, Zondervan, Grand Rapids, 1980, p. 494.

9) Henrik Krabbendam, *The Functional Theology of G. C. Berkouwer*, In: *Challenges to Inerrancy*, Ed. Gordon Lewis and Bruce Demarcest, Moody Press, Chicago, 1984, pp. 287-294, 권성수 역, 《성경무오: 도전과 응전》, 엠마오, 382쪽.

것에 있어서 하나님의 교훈으로 신앙되어야 하며, 그것이 요구하는 모든 것에 있어서 하나님의 명령으로 복종되어야 하며, 그것이 약속하는 모든 것에 있어서 하나님의 보증으로 수납되어야 한다.”¹⁰⁾

2. 성경의 무오(無誤)에 대한 새로운 이해

현대 복음주의의 흐름 가운데는 구 프린스턴 학파의 워필드(B. B. Warfield)나 핫지(A. A. Hodge)의 경직된 성경영감을 비판하면서 하나님 말씀의 불오(不誤, infallibility)을 강조하면서 인간 저자의 불완전성을 인정하는 경향이 있다. 그리하여 성경의 불오를 신앙과 행위에 관한 것으로 한정하고 역사적 사건이나 표현의 정확성을 부인하는 경향이 있다.¹¹⁾ 그 대표적인 자들이 로저스와 맥킴(Jack Rogers/ Donald McKim)이다. 불오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전체적 신뢰성에 해당하고 무오성이란 성경이 가르치는 교리와 신앙과 행위에 해당한다.¹²⁾ 그러므로 인간 저자의 기록이나 역사관이나 과학관이나 자연관이나 세계관의 오류를 인정한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불오하나 유오하다고 한다.

불오는 역사나 사실 기록까지 포함한 성경 전체에 대한 신뢰성을 말한다면 무오는 신앙과 행위에 대한 부분적인 내용의 신뢰성만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불오(Infallibility)와 무오(Inerrancy)를 분리하기에 이른다.

성경의 무오는 역사나 과학이나 자연 등의 표현에는 해당하지 않고 교리나 신앙이나 행위에만 해당하는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194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성경무오란 단어는 무오(inerrant) 아닌 불오(infallible)이었다. 당시에는 두 단어가 교차되어 사용되었기 때문에 그 의미가 같았다.¹³⁾ 그 후 이 용어의 의미가 점차 수정되어 성경의 권위가 역사나 과

10) N. Geisler, *op. cit.*, p. 494.

11) Harold Lindsell, *The Bible in the Balance* (Grand Rapids: Zondervan, 1979), p. 72.

12) Jack Rogers and Donald McKim, *The Authority and Interpretation of the Bible: A Historical Approach*, New York: Harper & Row, 1979.

학의 영역에는 해당되지 않고 신앙과 구원의 영역에만 국한된다고 주장되었다. 그리하여 복음주의자들 가운데 성경의 본래적 의미를 살리기 위하여 무오(inerrancy)란 용어를 사용하게 된 것이다. 복음주의 개혁신학은 무오(無誤)라는 용어를 불오(不誤)와 동일하게 사용한다. 무오란 “전체에 있어서 일체의 허위, 사기, 혹은 기만으로부터 자유로움”을 뜻한다.¹⁴⁾ 불오와 무오는 성경의 영적, 종교적, 구속적 주제들만이 아니라 역사와 과학 분야에까지 미친다.

1947년 설립 당시 성경의 신뢰성과 무오를 불가분적으로 선언한 [풀러신학교]는 오켄가의 후임으로 학문적 명망이 있는 카넬(Edward Carnell)이 학장으로 취임하면서 성경관에 있어서 학교의 신앙고백과는 다른 교수들이 영입되게 된다.¹⁵⁾ 카넬에 이르러 풀러는 이미 설립 당시의 성경관에서 떠나기 시작했다.

1963년 데이빗 허바드(David Hubbard)가 학장으로 취임하면서 성경무오 입장에서 떠나기를 시작했다.¹⁶⁾ 허바드는 창세기의 첫 11장을 신화하고 규정짓는다. 그 내용들은 사실적인 역사 안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영적인 영역에서 일어난 것이라고 본다. 그리하여 풀러신학교는 1975년 새로운 신앙고백을 작성하고 여기서 불오와 무오를 구분하기에 이른다. 이것은 신학 정신의 자유주의화요 신학적 정체성의 위기를 말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의 책들이 전체적으로나 부분적으로나 오류가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신앙과 행위의 규범에 관해서만 아니라 역사, 과학, 연대기 등의 문제에도 오류가 없다고 받아야 한다.

[성경무오에 대한 시카고 선언] 4항이 천명하는 바같이 성경은 “구원적 측면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창조 행위와 세계 역사의 사건들과 하나님 아래에서 그 자체의 문헌적 기원에 대한 진술면에서, 즉 그 모든 가르침에 있어서

13) Harold Lindsell, *The Bible in the Balance* (Grand Rapids: Zondervan, 1979), p. 72.

14) N. Geisler, *op. cit.*, p. 496.

15) George Marsden, *Reforming Fundamentalism: Fuller Seminary and the New Evangelicalism* (Grand Rapids: Eerdmans, 1987), pp. 143ff.

16) George Marsden, *Reforming Fundamentalism: Fuller Seminary and the New Evangelicalism* (Grand Rapids: Eerdmans, 1987), pp. 208-215.

오류나 결함이 없다.”¹⁷⁾

우리는 성경의 영감과 가르침에 대한 불오와 인간 저자의 사실적 기록에 대한 무오를 분리할 수 없다. 만일 이 양자를 구분하다면 하나님의 말씀(불가 오류성)이 기록의 오류 속에 있다고 보아야 하며 이것은 하나님 말씀의 정확 무오성을 부인하는 결과를 낳기 때문이다.

어거스틴, 루터, 칼빈 등의 성경관에는 이러한 신앙과 과학, 케리그마와 사실, 신앙과 이성의 이분법이 결코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양자를 분리하는 자는 우드브리지(Woodbridge)가 지적하는 바같이 고등비평의 포로가 된 것이다.¹⁸⁾

프린스턴의 역사신학자 필립 휴(Philip E. Hughes)는 “1500년 이상 동안 하나님의 무오하게 영감된 책으로서의 성경의 권위와 진정성은 기독교의 고정되고 논란되지 않은 신앙이었다”고 말하면서 이 사도적 교훈을 포기함으로써 오늘날 교회에 권위의 위기를 초래했다고 피력하였다.¹⁹⁾

그러므로 성경무오성에 기초한 성경관 확립이 요청된다. 1978년 “성경 무오에 대한 시카고 선언문”(The Chicago Statement on Biblical Inerrancy)은 성경무오성에 대한 복음주의자들의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이 선언문은 25조항으로 되어 있으며 성경의 영감적 권위와 무오를 천명하고 있다. “성경의 겸허한 인간적 형식이 오류를 내포하고 있다는 것을 부인한다.” 우리는 성경무오에 대한 현대 과학적 오해를 불식시켜야 한다.

블라쉬(Donad Bloesch)는 성경의 무오를 변호하기 위해서 신적 기준과 자연과학적 기준을 구분한다. 신적 기준에서 진리란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대한 일치이며, 현대과학적 기준에서 진리란 자연과 역사에 있어서 객관적으로 일어났다고 보고된 것에 있어서 정확성이나 일치를 뜻한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실성이 진리에 대한 성경적 기준이다. 현대과학은 진리에 대한

17) N. Geisler, *Inerrancy*, p. 494.

18) John R. Muether, “Evangelicals and the Bible-A Bibliographica Postscript”, in: *Inerrancy and Hermeneutic*, ed. by Harvie M. Conn, Baker, 1990, pp. 255-256.

19) Philip E. Hughes, “The Truth of Scripture and the Problem of Historical Relativity”, in: *Scripture and Truth*, p. 177.

탐구의 영역을 객관적인 감각 자료(objective sense data)에 제한시켰다. 여기서 블라쉬는 신적 기준인 영원에 대한 상관성과 문헌적 사실성을 구분하면서 무오를 현대과학 기술적 정확성 기준에서 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피력하고 있다.²⁰⁾

그럼에도 불구하고 블라쉬가 신정통주의 영향을 받아 성경무오를 신적 계시 차원에 국한시키고 역사적이고 사실적인 차원에서 분리시키는 인상을 주는 점은 무오사상의 불철저성이라고 필자는 본다.

필자는 성경의 무오가 머레이(John Murray)가 지적한 바같이 “학문적 정밀성”(pedantic precision)이나 또는 스톤하우스(Ned B. Stonehouse)가 지적하는 바같이 공증(公證)적 정확(notarical exactitude)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생활세계적 진리를 말하고 있다고 본다.

파인베르그(Paul D. Feinberg)는 성경무오를 다음 같이 해석한다.

1. 성경무오는 문법 규칙들을 엄격하게 고수하는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2. 성경무오는 비유법이나 주어진 문학 장르의 사용을 배재하지 않는다.
3. 성경은 역사적 혹은 의미론적 정밀성을 요구하지 않는다.
4. 성경무오는 현대과학의 전문술어를 요구하지 않는다.
5. 성경무오는 신약의 구약 인용에 있어서 如字的 정확성을 요구하지 않는다.
6. 성경무오는 예수 말씀이 예수가 쓰신 정확한 단어들(ipsissima verba)과 정확한 음성(ipsissima vox)과 정밀하게 일치해야 함을 요구하지 않는다.
7. 성경무오는 어떤 하나의 기록이나 관련되고 결합된 기록들의 철저한 포괄성을 요구하지 않는다.
8. 성경무오는 저자들이 사용한 자료들의 불오(infallibility)나 무오(inerrancy)를 요구하지 않는다.²¹⁾

20) Donald G. Bloesch, *The Future of Evangelical Christianity. A Call Amid Diversity*, (Garden City, New York: Doubleday & Company, 1983), p. 123.

21) Paul D. Feinberg, "The Meaning of Inerrancy", in: *Inerrancy*, pp.299-302. 그리고 Earl D. Radmacher & Robert D. Preus, eds. *Hermeneutics, Inerrancy and the Bible*, Grand Rapids: Zondervan, 1984, pp. 283-348 그리고 권성수, "성경무오에 대한 7대 오해", <성경과 신학> 제7권, 1989, 85-87쪽.

[성경무오에 대한 시카고 선언]에 연결된 시인과 부인의 조항(Article of Affirmation and Denial) 13이 천명하는 것처럼 성경무오에 대한 평가는 성경의 용법이나 목적에 적절한 표준에 따라서 평가해야 한다. 따라서 성경무오란 “성경의 완전한 진실성에 대한 신학용어”(theological term)이다. 그러므로 “문법이나 철자법의 불규칙들, 자연의 관찰적 묘사들, 허위를 드러내는 보도들, 과장법과 어림수의 사용, 재료의 주제별 정렬, 병행구들에서 나타나는 재료의 다양한 선별, 혹은 자유로운 인용들의 사용” 등²²⁾ 현대 전문적 정밀성의 결핍 때문에 오류라고 말할 수 없다.

3. 고등비평의 극복 - 성경 해석의 새로운 방법론 발전

현대 성경신학의 고등비평과 역사비판적 방법은 끊임없이 성경의 권위에 도전해 오고 있다.

이 고등비평은 성경 연구에 있어서 하나님 없는 인간의 이성의 권위를 주장하고 있으며 현대의 자연과학적 세계관을 성경 연구의 척도로 전제하고 있다.

고등비평은 성경을 초자연적으로 주어진 하나님 계시의 말씀이 아니라 원시 히브리 종교의 역사적 발전 과정과 초대교회의 발전 과정에서 유래된 인간 종교 경험의 산물로서 본다.²³⁾

이 고등비평은 독일 종교철학자 트래츨의 역사 이해의 3가지 공리에 근거하고 있다.

이러한 세 가지 전이해는 인과율, 상관 관계와 비판이라는 역사과학적 범주이다. 이 범주는 역사의 모든 일은 인과율에 의하여 지배되며 기적이나 하나님의 초월적 역사 간섭은 불가능하다고 보는 것이다. 영국의 개혁주의 성경학자 하워드 마샬(Howard Marshall)의 비판은 타당하다. “처음부터 역사비평적 방법은 성경 자체가 말해주는 것과는 다른 기독교에 관하여 설명하려

22) N. Geisler, *op. cit.*, p. 496.

23) George M. Marsden, “Evangelical and Fundamental Christianity”, *The Encyclopedia of Religion*, vol. 5, 1987, p. 192.

고 의도하였다. 성경이 단순히 부분적으로 잘못될 수 있다는 가정이 아니라 실제로 잘못되어 있다는 전제가 그 방법 속에 구조적으로 자리잡고 있다.”²⁴⁾

1) 이러한 역사비판적 방법의 결론은 구약 문서의 대부분이 실제 역사적 사건과는 너무나도 유리하여 후대 신앙전승이 과거로 투사된 종교적 문서로서 신앙으로 꾸며낸 이야기거나 믿어진 역사 이야기가 되어 버린다. 이러한 비평적 결론은 현대 성경 해석의 방법론적 가설로서 자리잡고 있는 아직도 독일의 구약학자 벨하우젠(J. Wellhausen)이 제시한 아웨이스트(J) 문서, 엘로힘(E) 문서, 신명기 학파(D) 문서, 제사장(P) 문서로 표기되는 문서가설에서 잘 드러나 있다.

역사비판학은 성경적 입장이 아니라 역사실증주의의 입장에 서서 성경이 보고하고 있는 실제로 일어난 구속사의 사실 규명에 실패했다. 그리고 바르트, 볼트만 등을 중심한 신정통주의 신학 대두 후 성경 탐구는 사실 탐구인 역사(Historie)에서 믿어진 실존적 역사(Geschichte)로 전환함으로써 실존주의 해석으로 나아갔으며 판넨베르그(Pannenberg)가 지적하듯이 역사도피주의로 빠지게 되었다.²⁵⁾ 이스라엘 역사 연구에 있어서 독일의 알트-노트(A. Alt-M. Noth) 학파는 구약 본문에 대한 철저한 문서비평적 방법과 팔레스틴의 역사지리적 배경 연구를 통하여 이스라엘 역사는 사실 역사가 아니라 케리그마적 역사라고 결론지었다. 특히 족장의 역사와 모세 및 출애굽 사건 자체의 실제 사실성을 부인함으로써 “역사적 허무주의”로 나아갔다.

복음주의적 개혁신학은 이스라엘의 역사의 실제적 사실의 재구성에 대한 학문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24) I, Howard Marshall, *Biblical Inspiration*, Eerdmans 1982, P. 84f.

25) Yung-Han Kim, “Die universal-heilsgeschichtliche These der Rahnerschule und Pannenberg’s universal-geschichtliche Konzeption”, in: *Glaube und Geschichte* (Helge Stadelmann, Hrsg. Giessen /Basel/Wuppertal, 1986, S. 376. W. Pannenberg, *Offenbarung als Geschichte*, 100-101, Goettingen. 1970, “Heilsgeschehen und Geschichte”, in: *Grundfragen Systematischer Theologie*, Göttingen. 1972, 2 Auflage, S. 22.

2) 가블러(J. P. Gabler)가 1787년 알트도르프 대학 교수 취임 강연에서 성경신학은 교의학으로부터 독립되는 역사 연구라고 주장한 이래 구약신학은 영감설과 권위가 부인되고 종교진화론적인 발전 과정에서 구약신앙을 파악하려는 경향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진화론적 설명에 따르면 족장 종교는 주술종교 내지 정령 숭배(animism) 단계에서 출발하여 점차 다신교 시대(olytheism)와 배일신교(henotheism) 시대를 거쳐 마침내 주전 8세기 경 아모스 이후 윤리적 유일신교(ethical monotheism)로 발전했다고 본다. 이러한 진화론적 도식에서 윤리적 유일신교를 정(正, thesis)으로 보고, 바벨론 포로기 이후 유대교적 제의 율법종교를 반(反, antithesis)으로 보고, 양자의 대립관계를 지양하여 생겨난 절대가치의 사랑 종교인 기독교를 합(合, synthesis)으로 보는 역사변증법의 도식이 나온다.

비평학의 역사 연구의 전이해는 성경적이기보다는 헤겔의 변증법적 역사철학이나 랑케학파의 역사실증주의나 하이데거의 실존주의가 깔려 있다.

19세기의 종교사학파의 역사주의 횡포에 대하여 역사비평을 사용하면서 구약계시의 성격을 강조한 흐름이 아이히로트(W. Eichrodt)의 계약신학과 폰 라드(G. von Rad)의 전승사 신학이다.

아이히로트는 시내산 계약(출 19: 5-15)을 구약신앙의 핵심적 개념으로 하고, 폰 라드는 이스라엘 고대의 역사적 신앙고백들(신 6: 20-24, 26: 5-9, 수 24: 2-13)을 모체로 이스라엘의 신앙세계는 역사 속에서 일하시는 야웨 하나님의 행위와 그 계시에 대한 다양한 신앙전승들의 반응을 보여준다고 보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신학 역시 역사비평적 방법론의 기본적인 전제에서 벗어나지 못함으로써 구약 본문 자체가 주장하는 성경의 실제적인 역사성과 계시성을 부인하고 케리그마적 성격만을 강조하는 데 머무르고 있다.

폰 라드에 의하면 이스라엘의 구속사 설명이란 솔로몬 계몽 시기에 있었던 야웨이스트(Jahwisten)에서 시작한다.²⁶⁾ 이들에게 사사 시기로부터 유래

26) Gerhard von Rad, *Das erste Buch Mose, Genesis, Übersetzt und erklärt (ATD)*,

하는 이스라엘의 땅정복(Landnahme)에 관한 텍스트가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작은 신앙고백”(kleine Credo)이다. 이 신앙고백으로부터 야웨이스트들은 “정복의 전통”(landnahmetradition)과 “열조의 전승”(Vaeterueberlieferung)을 만들고 그리고 “원역”(Urgeschichte)을 만들었다. 이것들은 사실의 역사가 아니라 역사적으로, 지리적으로 연관되지 않는 “설화 전승”(Sagenerlieferungen)과 “전설들”(Aetiologien)이 수집된 것이다. 물론 이러한 구속사 전승에는 역사적 사실(historisches Faktum)이 있기는 하나 여러 모로 깨어졌고 변형되고 새로운 의미가 부여되었다.²⁷⁾ 그러므로 폰 라드의 구속사는 “신앙적 시적인 문학구성”(eine gläubig-dichterische Literakonstruktion)에 불과하다.²⁸⁾ 이처럼 독일 구약학에서 가장 보수적이라고 평가받는 폰 라드의 전승사 신학도 진리와 현실을 분리시키는 현대 고등비평의 방법론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독일학계의 성경신학은 역사적 예수와 초대교회가 구약성경을 어떻게 읽고 이해하였는가에 소홀히 취급하고 있다.

구약이 역사적 예수와 초대교회의 성경이었다면 예일의 차일즈(B. S. Childs)가 제시하는 바같이 경전(Canon)으로 받아들이는 태도는 고등비평을 극복하는 하나의 길을 제시해준다. 그리고 문학적 접근도 성경을 하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리퍼르가 제시하는 텍스트의 세계도 성경을 하나의 객관적인 문서로 보지 않고 오늘날의 독자와의 관계 속에서 이해한다는 것이다.

고등비평은 본문비평 - 본문번역 - 문학비평(자료비평) - 양식비평 - 전승사비평 - 편집비평의 분석적이고 복합적인 비평의 과정을 거치고 있으나 그 절차와 구성 내용에 있어서도 학자들 사이에 많은 의견과 해석의 불일치를 보이고 있다.²⁹⁾ 이러한 해석학적 인위성은 가다머(H. G. Gadamer)가 《진리와

Göttingen 1972, S. 1-26 (Allgemeine Vorbemerkungen).

27) von Rad, *op. cit.*, pp. 4-8.

28) Helge Stadelmann, “Hermeneutische Erwägungen zur Heilsgeschichte”, in: *Glaube und Geschichte. Heilsgeschichte als Thema der Theologie*, 1986, pp. 44-49.

29) 김중은. “복음주의적 구약학이란 무엇인가?”, <성경과 신학>, 제19권, 한국복음주의 신학회 논문집, 도서출판 햇불, 1996, 88쪽.

방법》*Wahrheit und Methode*에서 말하듯이 진리는 방법을 통하여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방법은 진리가 드러나는 데 장애가 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오늘날 고등비평의 해석학이란 살아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인위적인 작업으로 진리의 계시를 은폐해 버리고 있다. 가다머는 방법론적 사고보다도 텍스트의 고유한 사실을 드러내는 영향사적 해석학을 제시하고 있다.³⁰⁾ 성경해석학의 올바른 과제는 성경본문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다.

3) 새로운 해석학적 사고의 요구: 성경적 실재론적 사고

그러므로 독일 튜빙겐의 신약학자 마이어(G. Maier)가 주장하고 있는 바 같이 역사비평적 방법의 극복이 새로운 개혁신학의 방법으로서 요청된다.³¹⁾

근래에 신문학 비평을 표방하는 수사학적 비평(James Muelenberg), 구조주의 비평(Rolan Barth), 경전비평(Brevard S. Childs) 등이 이러한 역사비평적 방법의 한계를 극복하려는 새로운 노력이다.³²⁾

1978년 "성경무오성에 대한 시카고 선언문"은 하나님 말씀이 드러나도록 하는 방법론적인 틀을 제시하고 있다.

복음주의적 성경해석이 가장 경계하는 것은 계몽주의적 회의주의나 불가지론이나 합리주의나 관념론이나 실존주의의 전제를 성경해석학적 사고에서 수용하는 것이다. 계몽주의적 회의주의는 초월적인 것의 인식가능성에 대하여 회의한다. 불가지론은 초월적인 것은 알 수 없다고 주장한다. 합리주의는 이성적인 것만을 인정하거나 초월적인 것도 이성의 한계 내에서만 인정하고 알려고 한다. 관념론은 신의 초월성을 부인한다. 실존주의는 우리가 초월적인 것과 합리적인 관계에 들어가는 것을 부인한다.

과학적인 해석의 방법을 사용하되 이러한 세속적이고 비성경적이고 무신론적인 방법의 전제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30) 김영한, 《하이데거에서 리피르까지》, 박영사, 1993, 4판, 257-265쪽.

31) G. Maier, *Das Ende der Historisch-Kritischen Methode*, Wuppertal 1975.

32) 김중은, 상계서, 83쪽.

성경 텍스트는 문학적 형식과 장르를 고려하면서 문법적 역사적 주석(grammatico-historical exegesis)에 의하여 해석되어야 한다.

이것은 종교개혁자들이 주장한 바같이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다. 성경적 해석학적 사고는 텍스트 취급과 그것 배후에 놓여 있는 자료에 대한 질문에 있어서 텍스트의 가르침을 상대화하거나 비역사화하거나 평가절하하거나 저자됨을 부인하는 태도가 부적절하다고 본다.

문학적 도구(literal tool)들은 성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면도 있으나 반대로 성경을 곡해하는 면도 있으므로 이 도구를 절대화하지 말고 비판적으로 사용하라는 것이다.

진정한 비판적 성경해석이란 비평적 작업에 의한 성경비판이 아니라 해석 도구에 대한 성경의 자기 비판이다. 성경 해석에 있어서 기본적인 전제는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위있는 경전(canon)으로 인정한다는 것이다. 이 말은 성경의 메시지에 대해 경청하면서 어떻게 하면 그 본문의 메시지가 그대로 드러나게 하는가에 있는 것이다. 따라서 내용비판(content criticism)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미 우리에게 완결되어 주어진 경전을 주어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메시지의 진의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지 그 편집자가 그 내용을 개조했다거나 내용이 사실로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내용을 비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복음주의자들은 성경 본문들 사이에서 나타나 보이는 외견적 불일치와 갈등과 긴장을 인정한다.³³⁾ 이것을 해결하는 데 해석학적 사고가 요청된다. 그러나 이것이 본문의 내용 비판으로 나아가서는 안 된다.

역사적 비평에 대하여 하나님의 계시를 드러나도록 하는 틀 안에서 제한적인 수용을 하고 있다. 경전 본문과 그 의미를 경청함에 있어서 적합한 비평적 도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창세기 1장-11장을 사실에 입각한 것으로 본다. 양식비평을 가치있는 것으로 수용한다.

성경 해석은 문자적인 정상적인 의미에 따라야 하고 이 문자적 의미는 성

33) N. Geisler, *op. cit.*, p. 501.

경 기자가 사용한 문법적-역사적 의미이다.

창조와 홍수에 관한 성경의 가르침을 이해하는 데 현대의 지질학적 고고학적 화석 조사가 표준이 될 수 없다. 성경의 창조와 홍수 기록은 우리의 자연과학적 이성으로는 이해하기 힘들다. 하나님의 계시적 사건이기 때문에 무오한 사건이다. 그러므로 오히려 현대의 자연과학적 연구를 성경의 계시적 진리의 빛 아래서 이해하고자 하여야 한다.

복음주의는 성경 해석에 있어서 해석학적 확실성을 주장할 필요가 없다. 그것은 본문의 다양한 의미를 차단시키기 때문이다. 성경 본문은 우리에게 권위있게 말하기 때문에 경청하고 해석하는 자들은 그 본문을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다. 이것은 리피르가 말하는 바같이 해석학적 의미의 잉여(surplus of meaning)이다.

성경이 말하는 바를 비판적으로 보지 않고 실재적으로 수용하는 사고가 성경적 실재론적 사고이다.

4. 근본주의의 교리적 협착성과 분리주의 극복

보수적 개혁신학은 교리적 순수성을 주장하다가 교리적 협착성에 빠지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보수적 개혁주의를 표방하는 미국의 신학교가 분열하는 예(例)에서 찾아볼 수 있다.

1929년 프린스턴 신학교는 포용주의 입장을 가진 장로교 총회의 입장에 따라서 이사진을 포용적인 인사로 구성하면서 신학적으로 포용적이 되었다.

당시 보수주의 교수들은 대부분 죽거나 은퇴한 뒤였다. 남은 교수들, 보수주의 윌슨(Robert Dick Wilson), 엘리스(Oswald Allis), 반틸(Cornelius van Til), 메이천(Grasham Machen) 등은 오번 선언(Auburn Affirmation)을 지지한 새로 구성된 이사회 밑에서 교수할 수 없다고 천명하고 프린스턴을 떠나 웨스트민스터 신학교(Westminster Theological Seminary)를 세웠다. 메이천 그룹 교수들은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를 “미 장로교회 총회에 의해서 재구성되기 전에 있었던 프린스턴 신학교의 정책과 전통을 계승하고 유지하기

위하여” 설립했다고 주장한다.³⁴⁾ 1929년 9월에 50명의 학생으로 첫 학기를 시작했다.

그리고 메이천 그룹은 장로교 총회의 자유주의적 정책에 대하여 신랄하게 비판한다. 그리하여 메이천 그룹은 교단으로부터 면직당하고 1936년 미장로교회(Presbyterian Church of America)를 설립하고 나중에는 명칭을 정통장로교회(Orthodox Presbyterian Church)로 바꾼다.

그러나 다음 해 1937년 6월 이 교단은 분열되어 성경장로교회(The Bible Presbyterian Synod)가 설립된다. 여기서 미국의 보수신학은 교리적 협착성으로 말미암아 분열에 분열을 거듭하게 된다.

이들은 다같이 축자영감설을 믿었다. 그러나 이러한 고유한 교리적 배타주의 태도는 새로운 교리 논쟁을 불러 일으켰다. 그것은 전천년설(premillennialism)과 신자의 자유(freedom of believers)에 관한 이슈였다. 그리고 술담배 불가 등 성결된 삶에 관한 문제가 교단신학의 분열을 일으킨 것이었다.

성경장로교회는 페이스 신학교(Faith Theological Seminary)를 설립한다. 그리고 페이스 신학교에서 1956년 카브난트 신학교(Covenant Theological Seminary)가 분열되어 나오고 1980년 성경 신학교(Biblical Theological Seminary)가 분열되어 나온다.

그러므로 칼 헨리는 복음주의를 어렵게 처하도록 했다고 “사회적 고립주의”(social isolationism)와 영적 개인주의(spiritual evangelicalism)의 위험성을 지적하고 있다.³⁵⁾

블라쉬(Donald Bloesch)도 근본주의가 분파적 특성을 교리적 핵심으로 쟁점화함으로써 분열을 촉진했다고 비판하고 있다.³⁶⁾ 블라쉬에 의하면 근본주의는 인간의 종교적 전통을 하나님의 계시의 차원과 동일한 차원에까지 고양시키고 환난기 전 휴거, 7세대, 안식일주의, 알콜, 담배, 춤과 연극 등 부차적인 문제에 매달리는 서민종교일 뿐이다.³⁷⁾

34) Catalogue of Westminster Theological Seminary, 1937-1938, p. 14.

35) Carl F. H. Henry, "What Must We Do To Save the Day?", in: *Eternity*, Vol. 21, No. 12 (December 1970), p. 24.

36) Donald Bloesch, *The Future of Evangelical Christianity*, Doubleday, 1983, p. 29.

영국의 신학자 제임스 바(James Barr)는 미국의 복음주의를 다음 같이 비판한다.

“보수주의자들은 전체적으로 기독교의 주목할 만하게 전투적인 분파가 되어 왔다.”

그는 외부자가 보기에는 “보수적 복음주의 신앙은 하나로 된 통일성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보이는 갈등과 긴장이 이 운동의 중심에 놓여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³⁸⁾

복음주의자들이 역사비평학자들과 논쟁하고 저들의 이론을 비판할 때 저들을 정죄하거나 죄인시해서는 안 된다. 근본주의자와는 달리 복음주의적 개혁신학자들은 분리주의적이고 호전적 전투를 취해서는 안된다. 베드로와 바울이 권면하는 바같이 오래 참고 관용하며 설득하는(벧 3: 15)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한다(롬 12: 8). 이들과 항상 대화하는 문을 열어놓고 이들의 주장을 경청하는 겸허한 자세를 가져야 한다.

1922년 미국에서, 근본주의와 자유주의 논쟁에서 초기에는 근본주의가 내건 근본 5개 신조에 동조하는 자가 많아서나 포스딕(H. E. Fosdick)와 매킨니(C. Macartney) 논쟁을 계기로 신앙의 완고성과 편협성을 주장한 매킨니보다는 포용성과 관용을 주장하는 포스딕이 많은 목사들을 자기 진영으로 끌어 들였다. 그리고 근본주의는 1925년에 테네시 주에서 진화론을 가르친 고등학교 교사(John Scopes)를 고발했던 이른바 “원숭이 재판 사건”에서 격렬한 언어와 흑색 선전 등을 사용함으로써 정서적인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되었다. 근본주의가 승리하지 못한 것은 신앙 사상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표현하고 싸우는 방법이 분열적이고 전투적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칼 헨리가 1957년의 저서 《현대신학에서의 복음주의의 책임성》 *Evangelical Responsibility in Contemporary Theology*에서 근본주의가 배교자로부터의 분리를 강조함으로써 반동적 정신보다도 사랑의 결여 정신에 의하여 지배받았고 그리하여 파산 선고를 받았다고 비판한 것은 주목할 만하다.³⁹⁾

37) Donald F. Bloesch, *The Future of Evangelical Christianity*, p. 21.

38) James Barr, *Fundamentalism* (London: SCM Press, 1977), p. 187.

그리하여 보수주의자들은 신앙은 같지만 분열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극우파 근본주의자들보다는 신앙이 다른 자유주의자들을 동료로 선택했다는 점에서 21세기의 복음주의적 개혁신학자들은 많은 교훈을 받아야 할 것이다.⁴⁰⁾

5. 반지성주의 극복

1925년 미국에서 있었던 “원숭이 재판” 사건에서는 당시 전 국방상이며 장로인 윌리엄 J. 브라이언(William J. Brian)이 보수주의를 위하여 변호하고, 한 무명의 신문기자가 고발당한 고등학교 교사 존 스톱스(John Scopes)을 위해 변호했는데 브라이언이 과학에 대하여 상당히 무식하다는 여론을 얻어 판정패하였다.⁴¹⁾

개혁신학 내의 근본주의적 경향은 신앙적 체험과 교리에 대한 이성적 설명을 거부하는 반계몽주의(obscurantism)의 요소를 지니고 있다. 그리고 자기들만이 교리를 알 수 있다는 영지주의적 “배타적 사고방식”(ghetto mentality)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반지성주의는 1970년대 이래 미국의 텔레복음주의자들 사이에 이성적 설득보다는 익살과 대중적인 위트와 그리고 복음송가 그룹을 통한 경배와 찬양 속에서 감정적 호소와 즉흥적 결단에 호소하는 부흥회식 기독교 전파로 나타났다. 여기서는 그리스도에 대한 직접적인 체험이 신앙의 전부가 된다. 여기서 기독교 신앙 지니는 지성적 측면인 가치관과 세계관과 인생관의 변화는 간과되고 있다.

도날드 블라우쉬(Donald Bloesch)는 1979년 그의 저서 《복음주의 신학의 핵심》*Essentials of Evangelical Theology* 제2권에서 복음주의가 신학적 빈

39) Carl F. H. Henry, *Evangelical Responsibility in Contemporary Theology* (Grand Rapids, Michigan: Eerdmans, 1972), p. 7.

40) 김기홍, “현대복음주의 운동의 평가”, <성경과 신학>, 제 7권, 1989년 10월, 174쪽.

41) Norman F. Furniss, *The Fundamentalist Controversy, 1918-1931*(Hamden, Con.: Archon Book, 1963), p. 3.

곤에 처하는 중요한 이유가 지성적 성취가 영혼을 얻는 것보다 아주 덜 중요하다고 간주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블라쉬는 지속적인 산 꼭대기 체험을 추구하고 신학적 이슈에 관하여는 회피하는 대중적 복음주의자들을 비판하고 있다.⁴²⁾

그는 1983년의 저서 《복음주의 기독교의 미래》*The Future of Evangelical Christianity*에서 근본주의가 성경의 역사적이고 문화적인 조건에 대한 질문 제기를 거부하고 성경에 기록된 것의 문학적 사실성(literal facticity)에만 집착함으로써 반계몽주의(obscurantism)를 장려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⁴³⁾

칼 헨리는 그의 주저 《하나님, 계시와 권위》*God, Revelation and Authority*에서 지성적 반성을 강조하고 있다.

“기독교 계시는 우주와 인간과 역사의 의미는 이해할 수 있는 지성적인 드러냄의 형식으로 초월적으로 주어진다. 이 근거에서 기독교는 신학과 철학과 역사와 과학의 지속적인 통일을 가능케 하는 항구적인 개념성을 제시한다고 천명한다.”⁴⁴⁾ 헨리가 표명하는 바같이 하나님의 계시는 초절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불가지적인 것이 아니다. 그것은 인간이 알아들을 수 있는 인간의 언어로 전달된다. 계시가 구약은 히브리어로 신약은 회랍어로 주어진 것과 같다.

그렇다고 하나님의 계시가 인간의 이성으로 다 이해되는 것은 아니다. 인간의 이성은 하나님의 계시를 수용하여 계시의 로고스를 따라서 그것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헨리가 주장하는 것처럼 불가지론이나 반계몽주의자에 반대하여 진리의 음미가능성을 천명한다. “어떤 자는 말하기를 계시나 진리의 시험은 아주 부적절하다. 인간 피조물은 질문없이 신적인 것을 받아야만 한다고 말

42) Donald Bloesch, *Essentials of Evangelical Theology*, vol. 2: Life, Ministry and Hope (New York: Harper & Row, 1979), p. 267.

43) D. Bloesch, *The Future of Evangelical Christianity*, p. 29.

44) Carl F. H. Henry, *God, Revelation and Authority*, Vol. 1 (Waco, Texas: Word Books, 1976), pp. 121.

한다. 그러나 진리의 시험은 아주 적절한 것이다.”⁴⁵⁾

개혁신학은 바르트의 신정통주의나 볼트만의 실존신학이 주장하듯이 계시란 하나님과의 대면이요 신과 인간의 만남이라고 주장함으로써 계시가 지니고 있는 명제적 내지 개념적 요소(propositional or conceptual elements)를 부인하지 않는다. 물론 계시는 문학적 내지 묵시적 비유나 기적이거나 표적이라는 신적 사건 등 비명제적 형태를 지니고 있으나 이러한 사건들은 명제적 형태로써 성경으로 기록되는 것이다.

하나님이 성경을 통하여 주신 진리는 우리가 알아들을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일단 우리가 세속적 이성을 떠나서 계시적 로고스를 향하여 열리면 이성적으로 하나님의 계시적 진리를 이해할 수 있다. 그러므로 개혁신학은 이성적 반성과 학문적 탐구를 개발해야만 한다.

6. 개혁신학적 성령론의 정립

1) 성령에 대한 추상적 이해가 아니라 구체적 체험이 요청된다.

신학적 기초를 바로 세우는 것은 단지 교리적인 차원의 지식으로는 추상적인 것에 머문다.

신앙이란 근본적으로 주어진 말씀에 대한 신뢰(fiducia)이지 진리에 대한 동의(assensus)가 아니다. 여기서 신뢰를 주는 것은 지성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이다.

루터의 종교개혁운동에는 그의 탐-경험(Turmerlebnis)이 있었다. 웨슬레의 부흥운동에는 그의 회심의 체험이 있었다.

20세기 초 자유주의에 대항하여 기독교의 근본 진리를 수호하고자 했던 근본주의 운동은 그 정신적 기초를 19세기 말 무디(Dwight L. Moody)의 부흥운동과 토레이(R. A. Torrey)와 빌리 선데이(Billy Sunday)의 체험적 신

45) C. F. H. Henry, *op. cit.*, 232.

양과 복음적 신앙에서 유래한다.⁴⁶⁾

2) 은사 종결론을 극복하는 개혁신학적 성령론

개혁신학의 전통 가운데 카이퍼(A. Kuyper), 워필드(B. B. Warfield), 헤크마(A. A. Hoekema), 던(J. D. G. Dunn), 개핀(R. Gaffin) 등은 성령 강림의 단회성을 주장하고 연속성을 부인함으로써 은사 종결론을 주장한다.⁴⁷⁾

이들의 주장에 의하면 은사(예언이나 방언, 병고침, 기적 등)는 사도시대에 교회의 초석을 닦기 위하여 주어진 일시적인 은사이기 때문에 정경이 완성됨으로써 그쳤다는 것이다.⁴⁸⁾ 그 주석학적 근거로 고전 13장 8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폐하리라”는 말씀이다. 여기서 이들은 온전한 것이란 완성된 정경이라고 본다.

블라쉬(Donald. F. Bloesch)는 그의 저서 《복음주의 기독교의 미래》*The Future of Evangelical Christianity*에서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나 화란 전통을 이어받고 있는 칼빈신학교 등의 개혁 신앙고백을 지니고 있는 고백주의 복음주의자들이 교회의 신앙의 고백서들과 종교개혁의 정신을 강조한 나머지 교회사에서 역사한 성령의 생동적 사역을 평가절하하는 약점을 지니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⁴⁹⁾ 이러한 은사종결론은 역사적인 교회의 신앙적 삶에 부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성경적으로도 그 근거가 결여되어 있다.⁵⁰⁾

이에 대하여 세 신앙의 선각자, 어거스틴, 에드워드, 웨슬레의 예를 들 수 있다.

(1) 어거스틴은 후기 저서 《하나님의 도성》 22권 8장에 그가 초기에 은사 종결론 사상을 철회하고 은사 지속에 관한 수많은 사례를 기록하였다.⁵¹⁾

46) 김기홍, “현대복음주의 운동 평가”, 《성경과 신학》, 제7권, 1989년, 164쪽.

47) 차영배, “성령론”, 《성경과 신학》, 제7권, 1989년 10월 137-151쪽.

48) R. Gaffin, *Perspectives on Pentecost*, Philipsburg: Presbyterian and Reformed, 1979.

49) Donald F. Bloesch, *The Future of Evangelical Christianity*, Doubleday, 1983, p. 38.

50) 차영배, “R. B. Gaffin 교수의 견해와 문제점”, “오순절 성령강림의 단회성과 연속성”, 《성령론》, 1987.

51) Augustine, *City of God*, in: J. Defferrai, ed., *The Fathers of the Church*, Vol. 24, St.

(2) 1735년에서 1740년에 이르는 요나단 에드워드의 부흥운동에서 일어난 성령의 역사이다. 에드워드는 성령의 역사를 “인간 영혼에 직접적으로 부여해 주시는 신적이고 초자연적인 빛의 작용”이며 이것은 “성경적이며 이성적인 교리”라고 설교했다.⁵²⁾ 이 대각성 운동에서 회심한 자들 가운데는 눈물, 쓰러짐, 한숨, 몸의 고통, 몸에 힘이 빠짐, 졸도, 소리지름, 큰 소란과 동요, 환상, 황홀경 등 초자연적인 현상이 나타났다.

이 현상에 대하여 하바드와 예일대학의 신학자들은 “열광주의”, “가장 악하고 해로운 경향”, “교회를 혼란에 빠뜨리는 사단의 체계”라고 비난했다.

(3) 1739년 1월 1일 새해 첫날 새벽 3시경 웨슬레는 7명의 목사들과 60여명의 신앙동지들이 패터 라인에서 철야기도를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권능이 강하게 임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마루바닥에 쓰러져 버린” 사건을 체험하였다. 자신도 이때에 쓰러지는 체험을 하였다.

“넘어지는 체험”을 한 후 웨슬레가 인도하는 집회마다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권능에 압도되어 쓰러짐, 환상, 회개, 치유, 기쁨의 웃음, 울부짖음 등 여러 표적과 기사가 일어났다. 이러한 현상 때문에 웨슬레는 교계 지도자들로 부터 비난과 배척을 받기도 했다.

웨슬레는 1746년 6월 토마스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주권적 능력을 행사하시지 않는 시기가 있다고 생각치 않는다. 나는 사도 시대나 혹은 키프리아인의 시대 또는 어느 시대에만 그러한 일이 있었다고 제한하는 성경을 알지 못한다. 나는 구약이나 신약에서 그와 같은 종류의 은사에 관해 말하기를 ‘예언도 폐하고 방언도 그치리라’고 말하였지만 이것은 다른 모든 은사, 심지어 믿음과 소망까지도 사라지고 사랑만이 남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단서가 붙을 경우이다.⁵³⁾

Augustine, *City of God*, Books 17-22(DC: The Catholic University of America Press, 1947), 431-445.

52) Jonathan Edwards, “A Divine and Supernatural Light immediately imparted to the Soul by the Spirit of God, Shown to be both a Scriptural and Rational Doctrine”, in: *The Work of Jonathan Edwards*, Vol. 2, pp. 12-17.

53) John Telford ed. *The Letters of John Wesley*, vol. 2, London: Epworth n.d. 261.

오늘날 한국교회 내에서의 체험에서도 방언과 예언 등 은사 현상은 선교지에서 강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교회 안에서 보편화되어 가고 있다.⁵⁴⁾ 성령의 강력한 은사 현상은 선교지에서 초대교회처럼 토속종교이든지 모슬렘 같은 전투적 종교의 조직적 반대에 직면하여 단회적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재현하면서 교회의 초석을 놓는 일을 한다.

은사 현상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새 언약의 성취와 더불어 언약 백성에게 주시는 은사이다. 오순절 이후의 은사는 보편적이다. 구약시대에는 특별한 사람에게 부어 주셨으나 오순절 이후에는 만민에게 부어 주신다.

3) 빈야드 운동처럼 열광적 체험론을 정리하는 성령론

1980년대로부터 성령의 “제3의 물결”이라고 불리는 “빈야드 운동”(Vineyard Movement)이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이 운동은 이미 1900년대에 일어난 성령의 “제1의 물결”이라고 불리는 “오순절 운동”(Pentecost Movement), 그리고 1960년대 일어난 성령의 “제2의 물결”이라고 불리는 “은사 운동”(Charismatic Movement)과 동일한 성령 운동의 뿌리를 가지면서 기성교회에 파급되고 있다. 오순절 운동의 특징은 “두번째 축복”(the second blessing)으로서 성령 세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았다고 보며, 그 증거로서 방언의 필수적인 동반을 교리화하였다.

오순절 운동이 기성교회와 단절되어 독립된 교단을 형성한 것과는 달리 은사 운동은 기성교회 안에서 은사 운동을 계속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은사 운동은 성공회, 루터교, 감리교, 장로교 심지어 로마 가톨릭 안에서도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빈야드 운동은 성령 세례에 대한 오순절주의나 은사주의가 주장하는 두번째 축복이라는 입장과는 달리 회심 때 받은 성령의 선물로써 반드시 방언을 주장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성령의 은사로써 교회를 유익하게 섬기도록 하는

54) 유영기, “한국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은사체험에 대한 소고”, <성경과 신학>, 제15권, 1994년 4월, 75-81쪽.

기사와 이적(signs and wonders)을 주장한다. 제3의 물결의 이러한 온건한 주장은 오순절주의나 은사주의의 극단적인 은사론에 대해 거리감을 두면서도 이들 가운데 나타나는 기사와 이적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많은 복음주의 신학자나 목회자들을 저들의 운동에 포함하게 되었다. 미국 트리니티 복음주의 신학대학원(Trinity Evnagelical Divinity School)의 교수 도날드 칼슨(Donald Carson)과 웨인 그루뎀(Wayne Grudem) 등이 이 운동에 참여하고 있다.

지난 1995년 12월을 기해 존 워버(John Wimber)가 이끄는 아나하임의 빈야드 교회연합이 캐나다 토론토 에어포트 빈야드 교회와의 공식적인 관계를 끊게 되었다. 그 이유가 토론토의 에어포트 빈야드교회에서 성령을 물질화하거나 은혜받은 자들이 짐승의 소리를 내는 등 비성경적인 현상을 보이고 있으며 그것을 시정하지 않는 열광주의적인 방향으로 나아갔기 때문이다.

존 워버는 다음 같이 토론토 에어포트 빈야드 교회에 지지를 철회하는 공식적인 공문을 보내었다.

“우리는 사역 방법에 있어서 개인을 존중하고 매우 자연스런 방법이 되기를 추구합니다. 우리의 신조는 ‘초자연적인 것을 자연스럽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식으로든, 그것이 토론토건 다른 곳이건 간에, 성경 외적인 색다른 것들의 실행에 대하여 지지하거나, 권장하거나, 신학적인 해석을 주거나, 성경 구절을 뒷받침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입장은 성령의 갱신 사역은 하나님 나라의 일로서 성경에 분명히 언급된 것으로 절대 기준을 삼아야 된다는 것입니다.”⁵⁵⁾

빈야드 운동이 가지는 긍정적인 면은 성령의 생동적 사역에 참여함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가시적 임재와 능력 사역을 하게 함으로써 쇠퇴한 정통 기독교에 새로운 영적 힘을 불어 넣어준다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빈야드 운동은 말씀의 사역보다는 능력 사역을 강조하고 말씀을 통한 은혜보다는 능력 체험을 통한 체험을 강조함으로써 교회사에서 처음에는 신선하게 출발했으나 나중에는 불건전한 신비주의에 빠지는 위험성을

55) 1995년 12월 13일 존 워버의 공식 서한.

항상 동반하고 있다.

개혁신학이 공헌해야 할 영역이 바로 여기다. 개혁신학의 전통 속에서 이러한 새로운 성령의 물결을 무조건 배격하거나 이단으로 취급하지 말고 이러한 은사 운동과 성령 운동을 신학적으로 잘 정리해 주는 작업이 요청된다.

4) 성령 세례에 대한 개혁신학적 이해

미국 웨스트민스터의 개관(R. Gaffin)을 비롯한 은사 종결론자들은 오순절주의자들이 “성령 세례를 중생 이후의 체험으로 간주함”으로써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고도 최종적으로 얻은 구원”을 무시하게 되는 위험성을 지적하고 있다.⁵⁶⁾

이러한 위험성의 지적은 타당하다고 본다. 개혁신학의 전통이 말하는 바 같이 신자의 중생은 성령의 역사(세례)에 의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성령의 감화에 의하여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주의 교회의 지체가 되는 것이기에 때문에 오순절주의자 주장처럼 성령 역사의 양을 따져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나라는 양의 나라가 아니라 질의 나라이다. 이 말은 성령의 감화된 성령의 충만이든 성령으로 중생한 역사로 이해되어야 한다는 말이다. 믿음에도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그러나 성령은 후자만이 믿음이 아니라 동질적인 믿음이라고 본다. 그러므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른다”고 믿음의 성장과 발전을 말하고 있다. 성령의 역사도 감화가 있고 지속적 내주가 있고 그리고 충만이 있다. 이 모든 과정의 성령의 역사가 모두 동질적 성령의 역사이다. 하나의 성령 역사의 두 측면, 의인과 성화의 측면이 있을 뿐이다. 중생과 의인 외에 또 다른 더 높은 구원을 추구한다는 것은 의인과 중생의 역사에서 벗어나는 길이 될 수밖에 없다. 중생과 의인 외에 또 다른 구원의 길은 없다. 중생과 의인이 바로 성령의 세례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이것은 앞으로 오게 될 더 풍성한 성령의 충만을 위한 시작이요 출발점이다.

그러므로 성령 세례를 중생 이후의 체험으로 보는 오순절주의의 견해에

56) Gaffin, *op. cit.* p. 139.

대하여 동의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중생 이후 경험하는 성령의 능력적 체험을 부인할 수는 없다. 용어의 혼돈을 막기 위하여 중생 이후의 성령의 능력적 체험을 성령세례라고 하기보다는 성령의 충만으로 불러야 할 것이다. 중생 이후에 경험하는 성령의 능력적 체험을 성령 세례라고 하기보다는 성령의 충만으로 하면 성령세례와 중생을 동일시하는 개혁신학의 전통에 하등의 모순되지 않는다.

고전 12장 13절이 증거하는 바같이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성령 세례는 여기서 명백히 유대인이나 이방인, 종이나 자유자나 모두 그리스도의 몸에 신비적으로 연합되는 것을 말한다. 성령 세례는 능력의 세례보다도 먼저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가 된다는 중생과 연관이 있다. 그 다음이 지속적 성화와 복음의 능력있는 사역을 위한 성령의 충만이다.

그러나 오순절주의가 주장하는 바같이 항상 선후 관계만 성립되는 것은 아니다. 바울이나 고넬료의 경우처럼 동시적일 수도 있다. 이것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에 달려 있다.

영국의 청교도 개혁신학자 로이드 존스(LLoyd-Jones)는 사도행전 4장의 성령 충만과 에베소서 5장 18절의 성령 충만을 구분한다. 전자는 “특별한 경우”에 주어지는 성령의 능력이고, 후자는 “계속적이고 영구적인 상태, 멸하지 않고 이질화되지 않는 조건”(생활상의 성령 충만)으로 본다.⁵⁷⁾ 그리고 미국의 개혁신학자 웨이크마(A. Hoekema)도 성령 세례와 중생을 동일시하면서도 성령 충만을 특별한 의무를 수행하도록 일시적으로 능력을 부여하는 성령 충만과 생활 속에서 지속되는 성령 충만으로 구분하여 이해한다.⁵⁸⁾

개혁신학은 인간의 전적인 부패성과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고백하기 때문에 인간의 전적 부패성에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공로를 죄인에게 적용시키는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에 의한 성령의 세례를 통

57) LLoyd-Jones, 《성령론》, 홍정식 역, 새순 출판사, 1986, 105-110쪽, 유명기, 상계서, 55쪽.

58) A. Hoekema, *Holy Spirit Baptism*, Grand Rapids: Eerdmans, 1972, pp. 81-87, 유명기, 상계서, 57쪽.

한 중생과 지속적 성화를 위하여 성령의 충만을 필요로 한다. 성령의 세례와 충만한 은혜가 필요로 되는 것은 인간의 전적 무능과 부패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의와 거룩을 자력으로서는 이룰 수 없기 때문이다.⁵⁹⁾

7. 세대주의의 극복

보수신학은 기독교 진리의 근본을 받아들인다는 측면에서 한국에서는 세대주의와 혼동하기에 이르고 있다. 세대주의는 성경관에 있어서 역사적 개혁주의와 같이 성경을 성령으로 영감되고 오류없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 내용에 있어서 역사적으로나 과학적인 면에서도 아무런 오류가 없는 것으로 본다. 이런 점에 있어서 세대주의는 보수주의와 더불어 개혁주의 교회 내에 긍정적으로 수용되었다.

그리하여 전투적인 근본주의는 유교적 보수성이 강한 한국교회에 마치 진정한 보수신학으로 도입되었다. 세대주의(Dispensationalism)는 영국의 다비(John N. Darby, 1800-1882)에서 시작하여 미국의 토레이(Reuben A. Torrey, 1856-1928), 스코필드(C. I. Scofield, 1843-1921)에 의하여 체계화되었다. 스코필드는 세대주의 신학의 관점에서 《스코필드 주석 성경》*Scofield Reference Bible*을 1909년 편집 출판하여 세계적으로 유명해졌으며 한국교회에서도 목회자와 평신도 사이에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세대주의는 성경을 가능한 한 문자적으로 해석하며 인류의 모든 역사 과정을 성경과 관련하여 해석한다. 세대주의는 인류의 역사를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일곱 세대(seven dispensations)로 나눈다. 스코필드의 세대 구분에 의하면 첫째 세대는 죄 없는 순결 세대(창조부터 에덴 추방까지), 둘째 세대는 양심 세대(에덴 이후로부터 노아 홍수까지), 셋째 세대는 인간 권위 세대(노아 홍수 이후부터 아브라함까지), 넷째 세대는 하나님의 약속 세대(아브라함부터 모세까지), 다섯째 세대는 율법 세대(모세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여섯

59) 차영배, "이십세기 성령론 평가", 심산신학 아카데미 개원 특강, 1996년 3월 18일.

째 세대는 은혜 세대(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이후부터 휴거 때까지), 일곱번째 세대는 예수 그리스도의 천년왕국 세대(재림부터 최후 심판까지)이다.⁶⁰⁾

세대주의는 천년왕국의 도래와 그 직전에 나타날 사건들을 강조한다. 특히 믿는 자들이 들려 올라가 공중에서 재림하시는 그리스도를 만나는 휴거와 지상에 남은 자들의 7년 대 환난, 유대인들의 회개를 주장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예루살렘에서 지상왕국을 세우시고 최후 심판 때까지 천년을 다스린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세대주의의 성경 해석은 인간 구원의 근거와 책임이 세대마다 다르다고 잘못 가르치고 있으며 성경 본문들을 어느 특정 세대에만 유효한 것으로 국한시키는 편협성을 지니고 있다.

특히 귀신을 쫓아내거나 병 고치는 은사는 초대교회 때만 국한된 현상이지 오늘날에는 이러한 은사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성경 해석도 이러한 세대주의적 발상에서 온 것이다.⁶¹⁾ 한국교회는 한편으로는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구프린스턴의 워필드 신학에서 받았고 성경 해석으로는 세대주의로부터 배웠다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세대주의 성경 해석은 자유주의에 대항하여 싸우는 투쟁적 근본주의의 분리 운동에 성경해석적 정당성을 주기도 하였다. 그것은 성경 진리의 수호를 위하여는 교회 분열의 논리를 서슴지 않고 감행하였다. 세대주의자들은 성경이 오늘날의 많은 교회들이 타락하고 순수한 신앙에서 변질하고 배교할 것을 예언하고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다.⁶²⁾

세대주의의 성경 해석의 오류는 그리스도 중심이 아닌 유대주의적이라는 데 있다.⁶³⁾

세대주의자들은 구약과 신약을 아무런 관계가 없는 이분법으로 나누고 유대교적인 관점에서 신약을 해석한다. 따라서 예수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60) Paul Enns, *The Moody Handbook of Theology*, Moody, 1989. pp. 516, 524-5.

61) 김중은, "복음주의 구약학이란 무엇인가?", <성경과 신학>, 제19권, 1992년 6월 햇불, 74쪽.

62) George M. Marsden, *op. cit.*, p. 194.

63) 박수암, "성경에서 본 666과 종말론", 《시한부 종말론 과연 성경적인가》,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출판국, 1991, 70-84쪽.

연기 이론(postponement theory)에 따라서 해석한다. 예수가 선포한 하나님 나라는 유대인의 신정국가인 제2의 다윗 왕국의 회복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신 것으로 본다. 그러나 유대인이 회개하고 믿지 않음으로 왕국 설립을 재림 때로 연기했다고 본다.

그러므로 세대주의의 해석에 따르면 신약의 교회는 선지자나 예수의 본래적인 의도가 아니었다. 그것은 갑작스런 산물이 불과하다. 왕국의 복음이 예수의 본래 복음이었고 은혜의 복음은 왕국 연기에서 생겨난 부차적 복음이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 나라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 교회 시대는 팔호 시대 혹은 이방인의 때에 불과하다. 말세는 이러한 팔호 시대가 지나고 예수 재림 직전과 대 환난 기간을 가르키고 있다고 본다. 그리하여 말세의 모든 진행은 교회와 상관없이 이스라엘 민족에 의하여 진행되고 있다고 본다. 그리하여 세대주의자들은 성경의 중심 사상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두지 않고 말세에 유대인을 중심으로 건설될 천년왕국에 두고 있다. 그러므로 이들에 있어서 신약은 구약의 성취가 아니라 변종(variant)에 불과하다. 교회는 구약 이스라엘의 영적 후계자가 아니라 일시적인 막간(interlude) 현상에 불과하다. 구약과 신약은 아무런 관계가 없고 두 가지 전혀 다른 것에 불과하다. 율법 시대에는 은혜가 없고 은혜 시대에는 하나님의 신약 백성을 구속하는 율법의 계시는 없다고 본다. 그리하여 이들은 율법과 은혜를 서로 배타적인 원리로 대립시킨다. 마태복음에 있는 예수의 산상보훈도 은혜 시대의 교회를 위한 것이 아니라 다윗 왕국의 회복된 율법 시대의 유대인을 위한 것으로 본다. 요한복음은 교회의 책이나 마태복음과 요한계시록은 유대인의 책이라고 본다. 그리하여 이들은 성경을 교회의 책으로 보지 않고 유대인의 책으로 변질시키고 있다.

세대주의자들의 지나친 문자적인 성경 해석(다니엘서, 요한계시록)은 신비주의자로 하여금 재림을 연대적으로 계산하도록 하여 시한부 종말론이 나오도록 하는 출처를 제공하고 있다.

오늘날 개혁신학은 이러한 세대주의적 문자적 편협주의 사고나 분리주의적 사고, 이분법적 사고에서 종말론적 긴박주의에서 벗어나야 한다.

개혁신학은 종교개혁 신앙과 신학의 전통에 충실하면서, 성경의 권위를

강조하면서, 역사를 통관하면서, 언약을 통하여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속의 섭리를 전파할 수 있어야 한다.

세대주의적 틀이 아니라 구속사적 관점에서 성경을 해석해야 한다. 인류 역사를 통하여 일곱 세대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은총과 구속의 섭리만이 있다.

8. 역사 문화 의식의 함양

19세기와 20세기 자유주의 신학에 대항하여 일어난 근본주의 신학은 개신교회의 신학 형성에 큰 영향을 끼쳤다. 그것은 성경의 권위에 대한 믿음, 그리스도에 대한 인격적 믿음, 전도와 선교를 위한 개인적 헌신을 가져 왔다.

근본주의 신학은 다윈주의(Darwinism)와 고등비평(the Higher Criticism)과 사회복음주의(Social Gospel)에 대항하여 기독교의 복음의 근본 진리를 수호하고자 했다. 그리하여 현대주의와 세속주의에 대항하여 타협하지 않고 싸워 기독교의 근본 진리를 파수하고자 했다.⁶⁴⁾

그러나 분리주의적이고 전투적인 근본주의 운동은 냉담한 반응을 보였고 성공하지 못했다. 그것은 한국 보수교회 안에서는 잘 알려진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나 정통장로교회이지마는 미국 내에서는 변두리 신학교와 변두리 교단에 속하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므로 칼 헨리(Carl F. Henry), 풀러(Charles E. Fuller), 빌리 그래함(Billy Graham) 등을 중심으로 새로운 복음주의 운동이 일어났다. 이것이 신복음주의(Neo-evangelicalism) 운동이다.

이들은 근본주의적 신앙 유산을 계승하면서도 보다 폭넓은 복음주의 운동을 전개하였다. 성경의 권위와 그 신뢰성 그리고 세계복음화의 절박성 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인권적으로 유린당하고 소외되며 가난한 자들에 대한 관심을 강조한 것이다.⁶⁵⁾

64) George M. Marsden, "Evangelical and Fundamental Christianity", *The Encyclopedia of Religion*, vol. 5, 1987, pp. 190-197.

65) G. M. Marsden. *op. cit.*, pp. 194-195.

1995년 12월 7일 미국의 워싱턴에서 약 55명의 복음주의 지도자들이 미국 의사당에서 의회의 복지 예산 삭감에 반대하는 항의집회를 열며 가난한 자들을 위해 기도 드린 사회적 행동이 있었다. 경찰의 해산 요구에 불응한 이들은 모두 체포되어 결국 50불의 벌금을 내고 나왔으나 이들의 행동은 미국의 복음주의 지도자들의 사회적 관심을 천명하기 때문에 주목을 끈다. 시위를 주동한 인물로는 미국 복음주의 사회윤리협회 회장이나 이스턴 침례신학교 교수인 로널드 사이더, 이스턴 대학교(Eastern College) 사회학 교수이자 저명한 저술가인 토니 캠펠로, 진보적 복음주의 잡지인 순례자(Sojourner) 편집인인 짐 웰리스, 보스톤에서 목회하며 새로운 흑인 기독교 지도자로 주목을 받고 있는 유진 리버스 등이었다. 로널드 사이더는 미국 의회의 복지예산 삭감안이 380조 달러에 이르는 빈곤층을 위한 생계 보조금을 감축시키는 한편, 중산층에게는 245조불에 달하는 세금 감면 효과를 가져온다는 사실에 분개했다고 말했다. 이들의 행동은 1995년 약 1백여명의 개혁 전통의 복음주의 지도자들이 같이 서명하고 채택한 “갱신을 위한 외침: 다른 소리도 들리게 하라”(The Cry for Renewal: Let Other Voices Be Heard)는 성명서에 기반을 두고 있다. 이 성명서는 위의 시위 주동자 인물들 외에 하비 칸, 윌리엄 더니스, 테드 앙스트롬, 제임스 패커, 하워드 스나이더, 존 퍼킨스 등 미국의 복음주의를 대표할 만한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이 주축을 이루어 채택한 것이다.⁶⁶⁾

이처럼 미국에서도 복음주의자들이 사회적 관심을 가지고 저들의 신념을 정치사회적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다.

9. 복음주의적 여성신학의 정립

다가오는 21세기에 여성신학은 해방신학이나 민중신학보다 더 큰 신학적 영향을 가지게 될 것이다.

66) 김선일, “복음주의자들, 어디로 갈 것인가”(국제), <복음과 상황>, 1996년 3월호, 116-120쪽.

여성신학이란 여성들이 보는 성경과 하나님에 대한 고유한 섬세한 시각을 말한다. 그러나 오늘날 여성해방 신학자들은 여성의 시각을 여성해방의 이데올로기로 보고 성경과 기독교의 역사가 가부장적 사고의 영향을 받은 역사라고 비난한다. 초기 기독교는 성부를 성자와 아주 비슷한 젊은이로 생각했다. 후기 기독교 미술은 성부를 구름 속으로 뻗어 내려온 한 개의 손으로 축소했다. 15세기에 이르러서는 성부는 턱수염을 기르고 르네상스 시대 교황의 복장과 비슷한 옷을 입은 노인으로 그려졌다. 미켈란젤로가 시스틴 성당의 천장에 그린 전능한 창조주는 박력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독특한 모습을 보여준다. 이에 대하여 미국 가톨릭 신학회 회장인 엘리자베스 존슨 수녀와 같은 여권주의자들은 이러한 모습이 지나치게 “남성 중심적”이라고 비난한다.

그리하여 이들 과격한 여성신학자들은 성경이 말하는 여호와 하나님에 관한 신 이름까지 고치고자 한다. 그리하여 이들은 성경과 찬송가와 기도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부분을 열심히 삭제하고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인 “야웨”에서 남성을 연상시키는 부분을 끊어내고 “야”라는 호칭을 사용하고자 한다.⁶⁷⁾

이러한 이데올로기적 여성신학이 유니온 등 미국의 명문 신학교에서 가르쳐지고 있다.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님 어머니”와 대등하게 사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존슨 수녀는 되도록 여성 호칭 “그녀”(She who Is)를 쓰려고 한다. 여성해방 신학자들은 하나님의 부성을 인정하고 있지 않다.

독일의 여성 해방신학자 쉴레(Dorothee Sölle)는 서구의 신개념은 아우슈비츠 수용소를 허용한 책임있는 자이요 이런 의미에서 “남성의 그는 다름 아닌 남성적 권력에의 의지의 투사”라고 본다.⁶⁸⁾ 그녀는 서구의 전통신학을 남성 가부장적 신학으로 보고 여성해방신학과 구분한다. 가부장적 종교의 존재론적 피라미드의 모양은 남성으로 상상되는 신이 그 꼭대기에 있고 그 신 아래 남자들이 자리잡고, 그 밑에 여자와 동물과 식물들이 있다. 여기서 위계 질서(Hierarchie)가 수립되었고 이 질서 안에서는 높은 자가 낮은 자들에게

67) “푸대접 받는 하느님 아버지”: Newsweek 한글판, 1996년 6월 26일, 76면.

68) Dorothee Sölle, *Gott Denken*. Einführung in die Theologie. Stuttgart, 1990, 서광선 역, 259쪽.

권력을 행사한다. 서구의 하나님은 남성의 신으로서 힘이 있기 때문에 예배를 받는다고 본다.

필레는 하나님을 “남성 하느님 대신에 여신 또는 생명의 힘”이라고 부르고자 한다.⁶⁹⁾

그러나 이것은 성경의 계시성과 영감성을 무시하고 성경을 단순히 인간 문화의 산물로서만 인정하는 데서 비롯된 이데올로기적 사고이다.

이러한 과격 여성신학은 하나님 아버지라는 기독교의 개념이 사회적 개념이 아니라 신학적 개념이요, 계시적 개념이라는 사실을 도외시하고 있다.

성경은 하나님에 대하여 성적인 개념을 사용하고 있지 않다. 구약성경에는 하나님에 대한 성적 개념이 없다. 여신은 없다. 하나님은 남신도 아니고 여신도 아닌 성을 초월한 신이다.

하나님 아버지란 첫째, 성자를 그의 영원한 신성에서 낳으신 신적 원천이라는 뜻이다. 성부가 다른 고대 종교에서 보듯이 여신과 결합하여 성자를 낳으셨다는 것이 아니다. 성부로부터 성자는 영원토록 나셨고 성령은 영원토록 나오신다. 이러한 삼위일체적 신적 관계에서 성부는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는 하나님을 아랍어로 “아바”(abba)라고 불렀다.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이러한 이해는 유대적 기독교적 신 이해의 독특성이라 할 수 있다.

다른 고대 종교에서는 신을 우주의 창조주로 보지마는 아버지로 보지는 않는다. 이슬람교의 알라는 전능하고 자비로운 신이지만 그의 호칭 99개 중에는 아버지라는 칭호는 없다. 힌두교의 브라마(Brahma)는 창조주이나 아버지는 아니다. 비슈누, 크리슈나 라마는 그의 화신들이다. 불교에서는 창조주가 없고 아버지도 없다.

둘째,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창조주이시라는 뜻이다. 여기에도 남신이라는 성적 개념이 있는 것이 아니다. 그는 인간과 우주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창조주라는 뜻이다.

셋째,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뜻이다. 그가 보내신 아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다.

69) D. Sölle, *op. cit.*, p. 260.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것은 남성신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기 때문이다.

여성신학이 해방의 이데올로기를 빌려와서 쫓겨가 시도하는 것처럼 해방의 패러다임으로 서구의 전통 신학을 파괴할 것이 아니라 그 전통 안에서 시대적 새로운 해석을 가하고 여성의 역할이 두드러지고 있는 21세기의 시대적 상황 속에서 건전한 여성신학을 발전시키는 것이 요청된다.

10. 새로운 윤리신학-생태학적 윤리, 과학 기술의 윤리, 생명윤리-정립

다가오는 21세기 과학 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일어날 새로운 사회현상에 대하여 신학은 그 윤리와 가치를 제시해 주어야 한다.

원자핵의 평화로운 사용을 제시해야 한다. 현대에 있어서 과학 기술에 의한 산업의 발전은 엄청난 부작용을 초래하였다. 그것은 환경 오염, 자원 고갈, 인구 폭발 등이다. 현대인은 생태학적 의식을 각성하면서 우리의 생태를 건전하고 유지 가능하도록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생태학적 윤리신학의 정립이 요청된다.

과학 기술은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면서 이것이 인간과 사회를 위하여 바람직한지 그 사용을 바르게 해야 하는지에 관하여는 알려 주지 않는다. 그러므로 신학은 과학 기술의 윤리신학을 정립하면서 안락사, 낙태, 정보 윤리, 시험관 아기, 장기 이식 등에 관하여 그 윤리적인 가치 기준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더욱이 유전공학의 발달은 많은 문제를 야기시킨다. 인공수정 허용의 범위, 유전자 조작의 범위, 장기 이식의 한계, 인간 복제의 문제, 생명의 조작과 관련하여 일어나는 많은 윤리적 문제에 대하여 신학적인 처방을 해 주어야 할 것이다.⁷⁰⁾

70) Russell Chandler, *Racing Toward 2001*, 맹용길 역, 《2001년을 향하여 경주하는 교회》, 서울: 쿰란출판사, 1993, 82쪽.

1995년 5월 미국 캘리포니아 주 산 루이스 오비스토(San Luis Obispo) 폴리테크닉 주립대학(California Polytechnic State University)의 라울 캐이노(Raul Cano) 교수는 2천 5백만년 전에서 4천만년 전으로 추정되는 송진 속에 갇혀 굳어진 호박 속에 있던 꿀벌의 몸 속에서 胚種으로 변한 박테리아를 다시 살려 냈다고 한다. 이러한 생명과학의 발달은 인간의 죽었던 생명까지도 다시 살리려는 시도로 연결될 것이다. 이러한 현상들에 윤리적 가치를 설정하는 생명윤리는 지극히 중요한 21세기의 윤리학의 과제가 될 것이다.

11. 성경적 에큐메니칼 신학 정립

칼 헨리는 1976년의 저서 《정체성을 찾고 있는 복음주의자들》*Evangelicals in Search of Identity*에서 복음주의자들이 신학적 도서에 대한 관심이 결여되고 있으며 정치적이고 사회적이고 경제적인 관심을 지니고 진정한 성경적 에큐메니칼 운동을 추구하는 데 실패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⁷¹⁾

칼 헨리는 “동료 신자들이 성경적으로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공동적인 책임 능력과 신앙의 지체 안에서 서로간의 책임을 인정하는 복음주의적 가족의 더 넓은 감각의 회복”을 요청하였다.

성경적 에큐메니칼 신학의 정립을 위해서는 “오로지 성경만으로”(sola scriptura)의 원리에서 출발하면서 성경적이고 전통적이며 현대적인 원천을 역동적으로 종합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것은 소극적으로는 신학사의 정체된 형식주의에 빠지거나 또는 방어적인 성경주의에 빠지는 것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적극적으로는 신학적 이슈에 대한 지속적인 주석의 통찰을 경청하고 교부와 교회의 신학사를 통하여 내려오는 교회의 가르침을 경청하고 현대사회와 관련해서 교회의 의무와 가르침을 이해하는 것이다.⁷²⁾

71) Carl F. H. Henry, *Evangelicals in Search of Identity* (Waco, Texas: Word Books, 1976), p. 74.

72) Robert K. Johnston, *Evangelicals at an Impasse*, pp. 10-13.

복음주의적 개혁신학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신학의 규범이라는 확고한 신앙과 유일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공통적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성 안수, 은사 운동, 에큐메니칼 관계, 역사비판학, 성경 해석의 방법, 토착화 문제, 사회윤리, 생명과학과 공학에 관한 문제 등에 관하여 의견의 차이를 가질 수 있다. 이 점에 있어서 폭넓은 개혁신학의 포용성이 요구된다. 그것은 교리주의적 폐쇄성을 탈피하는 것이다.

편협한 개혁신학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구원에 대하여 인간의 책임을 강조하는 경건한 웨슬레신학은 알미니안주의요 인본주의로 간주된다. 여기서 개혁신학은 포용성이 요구된다.

성경적 에큐메니칼 신학의 정립을 위해서는 기독교의 기본 5대 교리 - 성경의 무오, 그리스도의 신성, 대속적 죽음, 신체적 부활, 그리스도의 신체적 재림 - 을 받아들이는 신학이라면 루터교 신학이든 감리교 신학이든 성공회 신학이든 가톨릭 신학이든 회랍정교의 신학이든 마음을 열고 저들의 가르침을 듣고 개혁신학보다 더 좋은 점을 배우는 사고이다.

맺음말

다가오는 21세기 개혁신학은 성경에 대한 신앙적이고 신학적으로 확실한 성경관과 성경 해석학의 새로운 방법론을 발전시켜야 한다. 그리고 개혁신학의 전통적 성령론의 기반 위에서 오늘날 세계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성령의 역사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이고 체험적인 성령론을 정립함으로써 다가오는 세기를 향한 영성신학에 대한 개혁신학적 바탕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영성신학의 방향은 내면적으로는 개인의 중생과 구원의 확신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항상 체험하는 것이며, 외면적으로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우리 사회와 역사와 자연과 우주 속에서 하나님의 청지기의 역할을 다하는 문화변혁자가 되는 것이다. 개혁주의적 영성이란 단지 경건한 자기 내면성으로만 침잠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그 내면적 경건성과 신앙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구현하는 것이다.

개혁신학은 내면적으로는 기도와 지성적 겸허로써 수행되어야 한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끊임없는 인격적 관계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명상 속에서 경청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이 영성신학이다. 그러나 진정한 영성은 자기의 내면성에 머물러 있지 않고 이웃과 사회를 향하여 증언과 변혁의 능력으로 나타나야 한다. 이것은 문화변혁의 신학이다.

21세기의 개혁신학의 방향은 내면적으로는 영성신학이요 외면적으로는 문화변혁의 신학이다.

The Tasks of Reformed Theology in the 21st Century -From Korean Context-

Kim, Yung Han(Soongsil Univ.)

Preface

Where should reformed theology in Korean context go, facing the 21st century?

Today we live in the difficult era when postmodernism is dissolving tradition, authorities and canon. I think whether reformed theology is alive or dead is up to whether or not authority of Scripture is approved. The coming 21st century is the era when postmodernism is ruling.

Postmodernism is a kind of postliberal thought to deny the canon. Such a stream of thought shall be more and more penetrating into the Christianity.

In the Luther's days of Reformation the Gospel was prohibited by the papacy from coming into light. In upcoming 21st century the Gospel preaching shall face the difficulty by the new secularism. We are in this situation appealed to highly raise the reformed slogan "sola scriptura" which the Reformators had discovered. Scripture alone is the source to guarantee for us the essence of Christian truth. The direction for

evangelical reformed theology to go is to succeed the reformed view of Scripture the Reformators left for us and to develop it in today's context.

1. A new understanding of doctrine of Bible inspiration

The authority of Scripture originates from divine inspiration. Earlier Berkouwer mentioned of the organic relationship of Spirit and human author with the term "adaptation" (aansluiting).¹⁾

The adaptation means that God comes down into the level of the human and communicates with him, just as a father does to his kids. This inspired Scripture is understood by the illumination of the Holy Spirit.

The extent of inspiration is not partial but plenary just as the *Chicago Declaration on Bible inerrancy* chapter 2 affirms, transmitting the traditional view. Scripture is an inerrant authoritative book in all issues it is dealing with.²⁾

2. A new understanding of biblical inerrancy

Today we do not have the original text of Scripture. However, we can through the text critique reconstruct the text almost near to the original text. The absence of original text can not give a reason to claim the biblical errors.

It is important for us to do away with modern scientific

1) Henrik Krabbendam, The Functional Theology of G. C. Berkouwer, In: *Challenges to Inerrancy*, Ed. Gordon Lewis and Bruce Demarcest, Moody Press, Chicago, 1984, pp. 287-294.

2) N. Geisler, *op. cit.*, p. 494.

misunderstanding with regard to biblical inerrancy.

American Evangelical Theologian, Donald Bloesch distinguishes divine and scientific criterion in order to defend biblical inerrancy. For the former, the truth is a correspondence to divine will and providence, for the latter, it is the accuracy and coincidence in the report of what objectively occurred in nature and history. The faithfulness to the word of God is a biblical criterion to the truth. Modern sciences limited the spheres of research in the truth to the objective sense data. Bloesch, distinguishing the relevance for the eternity which is divine criterion and literal factuality which is scientific criterion, insists biblical inerrancy should not be evaluated by the accuracy criterion of modern scientific technology.³⁾

According to my understanding, the biblical inerrancy means neither “pedantic precision”(John Murray) nor “notarical accuracy”(Ned B. Stonehouse), but a truth of life world. Paul D. Feinberg interprets the biblical inerrancy as follows.

1. Biblical inerrancy does not need to strictly stick to the grammatical rules.
2. It does not exclude the use of parable or literal genre.
3. It does not need a historical or semantic accuracy.
4. It does not need a professional term of modern sciences.
5. It does not need the verbal accuracy in citing the AT in NT.
6. It does not need the coincidence of Jesus's Words with ipsissima verba and ipsissima vox Jesus used.
7. It does not need the fundamental inclusiveness of writings concerned as well as connected with.
8. It does not need the infallibility and inerrancy of the data the authors made use of.⁴⁾

3) Donald G. Bloesch, *The Future of Evangelical Christianity. A Call Amid Diversity*, (Garden City, New York: Doubleday & Company, 1983), p. 123.

3. The Overcoming of higher criticism - discovery of a new method of interpretation

Contemporary higher criticism and historical criticism are ceaselessly challenging the authority of Bible. This higher criticism is claiming the authority of human reason without acknowledging the divine revelation, presupposes the modern scientific worldview as the criterion for Bible research.

In the preunderstanding of historical criticism is lying Hegelian philosophy of history, Rancke's historical positivism or Heidegger's existential philosophy rather than biblical worldview.

The streams to give stress on the character of Old Testament revelation, making use of historical criticism against the oppression of historicism of the 19th century's religious historical school were the covenant theology of W. Eichrodt and transmission theology of von Rad. However, they, also not released from the basic assumptions of historical criticism, still remained to deny the real historicity and revelation of Scripture and to stress on its kerygmatic character.

The higher criticism has been performed through the complex critique processes of literal criticism, literal translation, data criticism, form criticism, transmission history criticism and redaction criticism. However, in terms of its procedures and constructing contents, there have been diverse opinions and disharmony of interpretations among the scholars.⁵⁾

Such a hermeneutic disharmony and arbitrariness indicate truth is

4) Paul D. Feinberg, "The Meaning of Inerrancy", in: *Inerrancy*, pp. 299-302.

Earl D. Radmacher & Robert D. Preus, eds. *Hermeneutics, Inerrancy and the Bible*, Grand Rapids: Zondervan, 1984, pp. 283-348

5) Joong Eun Kim, "What is Evangelical Science of OT?", *Bible and Theology* Vol. 19, 1992, June 88쪽.

discovered not through the method but rather method becomes an obstacle, just as H. G. Gadamer mentioned in this book *Truth and Method*. Today's hermeneutics of higher criticism conceals through artificial operations the truth of revelation rather than listens to the living voice of God. Gadamer is suggesting the hermeneutics of effective history to uncover the own affairs of text rather than the methodological thinking.⁶⁾ The true tasks of biblical hermeneutics consists in listening to the living voices of God who is speaking through the biblical text.

3) Demand of new hermeneutical thinking: Biblical realistic thinking
The overcoming the historical criticism is requested as a new method of reformed theology for the 21st century just as German New Testament scholar, Gerhard Maier suggested.⁷⁾

The rhetorical criticism(James Muehlenberg), structural criticism(Roland Barthes), canonical criticism(B. S. Childs) are new efforts to overcome the limits of historical criticism.⁸⁾

[Chicago Declaration on Biblical Inerrancy] in 1978 was also suggesting a methodological framework to uncover the Word of God in the Bible.

Literal tools give a help for understanding Bible on the one hand, but on the other hand, gives a possibility to distort the biblical meaning. So it is needed to use them critically, but not to absolutize them. True critical Bible interpretation is not a criticism of Bible through critical operations, but a self-critique of Bible through the interpretative tools. The fundamental presupposition for Bible interpretation is to approve Bible as

6) Yung Han Kim, *From Heidegger to Ricoeur*, Bak Young Sa, Seoul, 1994, 4th edition, 257-265.

7) G. Maier, *Das Ende der Historisch-Kritischen Methode*, Wuppertal 1975.

8) Joon Eun Kim, *op.cit.*, 83.

an authoritative canon given to us by God. This means to listen to the messages of biblical text and to let them exposed as they are. We do not need to claim the hermeneutical uniformity in biblical interpretation. For it closes the diverse meanings of text. The biblical text is speaking the one Word of God to every time in a manifold way. So, we those listening to and interpreting it can interpret it in a diverse way. This is a surplus of meaning Paul Ricoeur is mentioning in his hermeneutics. It is needed to have a biblical realistic thinking not to critically evaluate but to accomodate what the Scripture is saying.

4. Overcoming the doctrinal narrowness of fundamentalism and the separatism

Conservative reformed theology has a danger to fall into the doctrinal narrowness by insisting on the doctrinal purity. Evangelicals are requested not to condemn them, when discussing with historical critical scholars and exercising a critique on their theories. Differently from the fundamentalists, the evangelical reformed theologians should be prohibited from performing the separationistic and jingoistic attitudes.

It is remarkable that Carl F. Henry in his volume of 1957 *Evangelical Responsibility in Contemporary Theology* mentioned that fundamentalists were ruled by the spirit of lack of love rather than the reactionary spirit and declared bankrupt, by insisting on the separation from the so called "apostasy."⁹⁾

The evangelical reformed theologians should have a lesson from that in the case of America the conservatives had chosen as colleagues the

9) Carl F. H. Henry, *Evangelical Responsibility in Contemporary Theology* (Grand Rapids, Michigan: Eerdmans, 1972), p. 7.

liberals who are different in confession rather than the radical right fundamentalists who had the same confession but a possibility to make split.¹⁰⁾

5. Overcoming the anti-intellectualism

A fundamentalist trend inside reformed theology is an element of obscurantism to decline the rational explanation of faith experiences and creeds. It is, furthermore, a gnostic ghetto mentality to insist that they alone get to know the creed.

We affirm the inquiry possibility of truth, opposing to the agnosticism and obscurantism just as Carl Henry told, the examination of revelation and truth is very proper, because God communicates us with the propositional truth.¹¹⁾ The truth God gave us through the Bible is not irrational, but understandable to our reason, if we leave the secular reason and are open toward the revelational truth of God, Therefore, reformed theology has to develop the rational reflection and scientific research.

6. Setting up reformed pneumatology

1) Not an abstract understanding but concrete experience of Holy Spirit is needed.

The creeds provides the framework of faith, however, only the knowledges of creeds lacking the faith experiences remain in the abstract faith. Faith is basically a fiducia in the given Word not a assensus with the

10) Ki Hong Kim, "An Evaluation of Modern Evangelical Movement", *Bible and Theology*, Vol. 7, 1989, October, 174.

11) C. F. H. Henry, *op. cit.*, 232.

truth. Here, what gives the trust and conviction is not intellectus but the work of Spirit.

In the basis of Luther's movement of Reformation was his tower experience. In the ground of revival movement of Wesley was this experience of conversion.

The spiritual basis of fundamentalist movement which intended to defend the Christian basic truths against the liberalism of the early 20th century originated from the revival movement of Dwight L. Moody and the experiential and evangelical faiths of R. A. Torrey and Billy Sunday.¹²⁾

2) Pneumatology to overcome the doctrines of cessation of charisma A. Kuyper, B. B. Warfield, A. A. Hoekema, J. D. C. Dunn and R. Gaffin in the theologians of reformed tradition affirmed the doctrine of cessation of charisma, by insisting on the discontinuation of the pouring of the Holy Spirit and denying its continuity.¹³⁾

Such a doctrine of the charisma cessation is not only unsuitable for the faith life of historical church but also lack the biblical ground.¹⁴⁾

Here, we can bring three forerunners of faith, Augustin, Edwards and Wesley who testified to the continuation of charisma.

(1) Augustin, in his later volume *The City of God*(22nd band 8th chapter) gave up his early thesis of cessation of charisma, testified to many cases of charisma continuation.¹⁵⁾

(2) Jonathan Edwards testified to the works of the Holy Spirit which

12) Ki Hong Kim, *op. cit.*, 164.

13) Young Bae Cha, "Pneumatology", *Bible and Theology* Vol. 7, 1989 October, 137-151.

14) Young Bae Cha, "View of R. B. Gaffin and its Problem", "Discontinuity of Pentecostal Spirit Pouring and its Continuity", *Pneumatology*.

15) Augustine, *City of God*, in: J. Defferrai, ed., *The Fathers of the Church*, Vol. 24, St. Augustine, *City of God*, Books 17-22(DC: The Catholic University of America Press, 1947), 431-445.

had occurred in his revival movement from 1735 to 1740. Edwards preached that the works of the Holy Spirit is the works of divine and supernatural light being directly poured on the human soul and this is biblical and rational creed.¹⁶⁾

(3) It is Wesley's experiences of faith conviction and the Holy Spirit. He experienced the event of works of the Holy Spirit that many faith comrades fell down on the floor, touched by the Holy Spirit coming upon them in 3 a. m. January I, 1739 when Wesley, 7 ministers and 60 believers prayed through the night. He experienced himself falling down. In the experiences of Korean churches today the phenomena of the charisma such as tongue speaking and prophecy are appearing strongly in the missionary activities and becoming a universal tendency.¹⁷⁾

The strong charisma phenomena of the Holy Spirit, facing the organizational opposition of folk religions and militant religions such as Islam, are spreading in the mission land like the early church and paving the way for establishing the church, by re-enacting Christ's salvific works in the Gospel Book.

4) Reformed understanding on the Spirit baptism

The cessationists including Westminster scholar, R. Gaffin indicate the danger that the pentecostalists are neglecting the salvation, completely and ultimately won in Christ, by considering the baptism of the Holy Spirit as the experience after the rebirth.¹⁸⁾

16) Jonathan Edwards, "A Divine and Supernatural Light immediately imparted to the Soul by the Spirit of God, Shown to be both a Scriptural and Rational Doctrine", in: *The Work of Jonathan Edwards*, Vol.2, pp. 12-17.

17) Young Kee Yoo, "On the Charisma Experience in Korean Church", *Bible and Theology*, Vol 15, April 1994, 75-81.

18) Gaffin, *op. cit.* p. 139.

The indication of such a danger is appropriate. The rebirth of the believer is possible only by the work (baptism) of the Holy Spirit, just as the reformed tradition teaches.

The believer accepts Christ by the influence of the Holy Spirit and becomes the member of church. We should not take as a criterion the quantity of the work of the Holy Spirit like the pentecostalists insist. The Kingdom of God is not the one of quantity but quality.

Whether it is influence of Holy Spirit or His fullness, both should be understood as the work of rebirth by the Holy Spirit. In the faiths there are the mustard seed sized one and the one moving the mountain. However, the Scripture views not only the former but also the latter as faith. It mentions of the growth and development of faith in the way one leads from faith to faith. In the works of the Holy Spirit there are also His influence, continual residence and fullness. The works of the Holy Spirit in all these processes are all the ones of homogenous

Holy Spirit. There are only two aspects of works of the Holy Spirit. The one is justification, the other sanctification. To pursue the higher salvation than justification and sanctification is to step out of the biblical-reformed way of justification and sanctification. There is no other way to salvation than rebirth and justification. The rebirth and justification are conducted by the baptism of the Holy Spirit. This is the beginning and starting point for the more abundant fullness of the Holy Spirit to come up furthermore.

Therefore, we do not agree with the opinion of the pentecostalism to view the baptism of the Holy Spirit as the experience after rebirth.

7. Overcoming the dispensationalism

Dispensationalism is in Korea confused with conservative theology in

the point to accommodate the fundamentals of Christian truth. It, like historical reformed theology, accepts the Scripture as inerrant God's Word inspired by the Holy Spirit, has views that its contents have no errors in the historical as well as scientific aspect. In this aspect, the dispensationalism was in the Korean church positively accommodated together with the conservative theology.

Thus, the militant conservatism was in Korean church like a true conservative theology introduced.

The errors of dispensationalism in Bible interpretation consist in not being Christ-centric but Jewish.¹⁹⁾

Dispensationalists, viewing Old Testament and New Testament as connectionless, divide them in dichotomy, interpret New Testament from the Jewish viewpoint. They do not see Bible as the book of church, changing it into the Jewish book.

Their radical literal interpretation of Bible (Daniel and John Revelation) provided the mystics with the ground for them to account chronically the date of Jesus' return and to suggest time-designated eschatology.

Reformed theology today has to step out of the literal narrow thinking, separationist thinking, dichotomistic thinking and eschatological emergency thinking which has come out of dispensationalism.

8. Cultivation of historical-cultural consciousness

Fundamental theology having arisen protesting the liberal theology of 19th and 20th century gave a great influences to building the protestant

19) Soo Am Park, "666 viewed from the Bible and Eschatology", "Is th Time-designated Eschatology biblical?", Korea Jesus Presbyterian Assembly Press, 1991, 70-84.

theology. It brought a faith in the authority of Bible, personal faith in Christ, individual commitment to evangelism and mission. However, fundamentalist movement was changed since 1930s from its original character, led a church split by the dogmatic and negative mentality, lacked the concern with culture and society.

A new Evangelical movement arose by the leadership of Carl Henry, Charles Fuller and Billy Graham. It was a movement of Neo-Evangelicalism.

The New Evangelicals, succeeding the fundamentalist legacy, developed the broader evangelical movement. They gave stress not only on the authority of Bible and its trustworthiness and the urgency of world evangelism but also on the social concern with those who were socially politically infringed upon their human rights, alienated and poor.²⁰⁾

On December 7, 1995, there was a social action in Washington, U. S. A. that evangelical leaders held in Capitol a protest meeting to oppose to the reduction measure of budget for social welfare by the parliament and to pray for the poor.

Their action was grounded on the statement of 1995 titled "The Cry for Renewal: Let Other Voices Be Heard" around 100 evangelical leaders from reformed tradition signed and adopted.

This statement was adopted by the leadership of theologians and ministers who can represent American evangelicalism, Harvey Conn, William Dunnis, Ted Amstrom, James Packer, Howard Sneider, and John Perkins including the persons organizing the conference.²¹⁾

We are encouraged to see that even in America the Evangelicals, having the social concern, showed their beliefs by means of the politico-

20) G. M. Marsden. *op. cit.*, pp. 194-195.

21) Seon Il Kim, "Evangelicals? Where should they go?", *Gospel and Situation*, March 1996, 116-120.

social action.

In Korea, theologians and ministers with the reformed tradition working in connection with the [Korea Evangelical Association], influenced by the [Lausanne Covenant] of 1974, have been showing the deep concerns on the issue of Korean unification, fair election campaign and social justice and human rights.

9. Setting up evangelical feminist theology

In the upcoming 21st century the feminist theology is expected to get bigger theological influences than the liberation- or Minjung theology. Feminist theology expresses the distinctive delicate perspective the women view Bible and God from.

Radical feminists, however, ideologically distort feminist perspective, interprets Bible as a product of patriarchal society. Thus, they are disregarding the fact that God father in the Bible is not a social concept but a theological one and a revelational one.

German woman liberation theologian, Dorothee Soelle views God of Western theology as "projection of the will into masculine powers."²²⁾ She, viewing Western traditional theology as masculine patriarchal theology, distinguishes it from feminist theology. According to her, God of Western world is worshipped, because he possesses power as masculine God.

Soelle is going to call God "Goddess or power of life instead of masculine God."²³⁾

However, this is an ideological thinking to disregard the revelation and

22) Dorothee Soelle, *Gott Denken. Einfuehrung in die Theologie*. Stuttgart, 1990.

Korean translation by Suh, Kwangsun, 259쪽.

23) D. Soelle, *op. cit.*, p. 260.

inspiration of Scripture and to consider it only as product of human cultures.

Bible does not use the sexual concept about God. Old Testament does not use a sexual concept about God. There is no goddess in the Bible. God is neither masculine nor feminine but beyond the sex. God father in the Bible means the divine origin to give birth to the Son from His eternal divinity.

The task of feminist theology is not to borrow the ideology of liberation and to destroy by means of liberation paradigm the western theological tradition. It is requested to give a new interpretation toward the Christian tradition and to develop a distinctive perspective and theological issue the women alone can do in the new situation of the 21st century.

10. New ethical theology - setting up ecological ethic, technological ethic and bioethic.

Reformed theology is asked to suggest an ethic and value for the development of high technology in the upcoming 21st century. Today the development of industry by the technology has brought forth great byproducts. These are environmental pollution, resource exhaustion, population explosion etc. The contemporary human is asked to awaken his ecological consciousness and to make use of his environment in a sound, maintainable way. For this, it is requested to set up an ecological ethical theology.

The technology does not tell us whether or not it is desirable for human and society to develop new technology and its use should be proper. Therefore, reformed theology, setting up the theology of technological ethic, is called to suggest the ethical criterion on the issues of athanasia,

abortion, information ethic, laboratory child, genetic manipulation and organs transplant.

Moreover, the development of genetic engineering gave rise to many problems.

Reformed theology is appealed to give theological measures in regard to many ethical issues arising concerning the extent of artificial fertilization permit, the one of gene manipulation, the limit of organ transplant, the issues of human cloning, manipulation of life.²⁴⁾

It should also suggest to show the right peaceful use of nuclear energy.

11. Setting up the biblical ecumenical theology

Today and in the 21st century when the world has become a earth village, the speed of globalization shall accelerate. Church and theology shall be coping with today's stream. For this, an ecumenical movement based on the Bible is requested to be developed.

For setting up the biblical ecumenical theology, it is needed to start from the sola scriptura principle and to be based on the biblical, traditional thought and to dynamically illuminate its contemporary significance. It is negatively to be released from being captured in theological stagnated formalism or a defensive biblicism. It is positively to listen to the insights of biblical commentaries concerning theological issues and to listen to the teaching of theologians coming down through the theological history of church and church fathers and to understand the duty and teaching of church concerning the modern society.²⁵⁾

24) Russell Chandler, *Racing Toward 2001*, Korean Translation by Yong Kil Maeng, 1993, 82.

25) Robert K. Johnston, *Evangelicals at an Impasse*, pp. 10-13.

Evangelical reformed theology has a basis of common faith in the Word of God which is the norm of theology and in Jesus Christ who is our Lord Savior. On this common basis, reformed theology can have the differences of opinion on the issues of women ordination, charisma movement, ecumenical relationship, historical criticism, method of biblical interpretation, indigenization, social ethic and genetic engineering. In these points, reformed theology is asked to have an open mind to tolerate the diverse opinions. This means to be stepping out of doctrinal narrowness.

Closing remarks

In the upcoming 21st century, reformed theology is called to develop the view of Scripture which is firm in faith and to develop theology and the new methodology of biblical hermeneutics.

Reformed theology is required setting up on the basis of the traditional pneumatology a concrete and experiential pneumatology in terms of the works of the Holy Spirit being developed worldwide, Thereby, it should pave a reformed theological way for the spiritual theology toward the upcoming 21st century.

The direction of spiritual theology is inwardly to experience the presence of God in the rebirth of individual and conviction of salvation. It is outwardly to become a cultural transformer who performs his role of steward of God in our society, history and cosmos God is working in. The reformed spirituality penetrates not only into the pious self inwardness, but also outwardly realize the inward piety and faith in all spheres of life God created.

Reformed theology should be performed inwardly by means of prayer

and intellectual humility.

We can ceaselessly keep through the prayer a personal relationship with God. One listens to the Word of God in the meditation. This is a spiritual theology. However, true spirituality does not remain in the inwardness of self, appear as powers of testimony and transformation toward neighbor and society. This is a cultural transforming theology.

The direction of reformed theology in the 21st century is twofold. It is inwardly the spiritual theology and outwardly the cultural transforming theology.